

# 이래 웃는 세월 을 줄 몰랐네

내 인생의 보물

글\_ 허현정

사진\_ 이상철·김영철



국가민속문화재 제301호 괴시리 전통마을 '할배 할매 이야기'

# “이래 웃는 세월 올 줄 몰랐네”

내 인생의 보물

글 허현정 | 사진 이상철, 김영철  
기획 영덕문화관광재단

## 목 차

### chapter 01

#### 프롤로그

기록, 그 첫걸음에 앞서 \_ 괴시마을 이야기 | 6

### chapter 02

#### 100년의 삶, 아직 진행 중인 이야기들

괴시마을 할머니를 만나다

그곳에 나의 어머니가 산다 - 신위성 (95세) | 12

작은 거인, 신통방통 용알 할머니 - 김기응 (89세) | 36

미안해 ... 어매가 참 미안해 - 권영자 (89세) | 60

영국 신사와 산 한평생 - 임순연 (82세) | 80

지는 싸움의 달인 - 김명자 (81세) | 96

### chapter 03

#### 에필로그

못다 한 말들의 입맞춤 \_ 도움 주신 분 | 112

chapter 01

프롤로그

# 기록, 그 첫걸음에 앞서

| 괴시마을 이야기

영덕군 영해면은 조선시대에는 영해부寧海府로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다. 고려 말의 영해는 3대에 걸쳐 문하시중을 배출한 영해 박씨의 박세통, 박홍무, 박감을 비롯해 많은 유학자들이 활동하던 지역으로 '소안동'이라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오랜 역사와 높은 문화 수준에 걸맞게 영해면에는 영덕군 총 66건의 건축문화재 중에 61건이 위치해 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반촌이 형성되었다. 동해안의 3대 곡창지대로 꼽히는 영해평야를 끼고 수백 년 간 터를 잡고 살아온 인량리, 원구리, 괴시리가 대표적이다.

특히 괴시마을은 고려 말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목은 이색(李穡 1328~1396)과 인연이 깊다. <죽부인전>, <가정집>을 지은 고려 말의 문신 이곡(李穀, 1298~1351)이 영해에 정착하면서 지방 토호였던 함창 김씨 김택의 사위가 되어 호지마을 현재의 괴시리 무가정無價亭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가 바로 성리학파의 스승이자 고려 말 절개를 지킨 삼은三隱 중 1인, 목은 이색이다.

괴시마을은 함창 김씨(목은 선생의 외가)가 800여 년 전 터를 잡은 이후 수안 김씨, 영해 신씨 등 여러 성씨가 살았지만 조선 인조 8년 1630년부터 영양 남씨가 정착하면서 현재까지 약 400년간 남씨 집성촌으로 단일 문중의 역사와 문화를 전승해오고 있다.



괴시마을의 이름은 원래 호지촌濠池村이었다. 동해로 흘러드는 송천 주위에 늪이 많고 마을 북쪽에 연못이 있어 호지촌濠池村이라 불렀는데, 목은 선생이 원나라에서 대학자 구양박사歐陽博士의 고향 괴시槐市에 들렀다가 자신이 태어난 호지촌의 풍경이 비슷해서 귀국 후 호지촌을 '괴시槐市'라고 고쳐지었다 한다.

400년 세월 동안 반촌의 전통을 곳곳이 지켜온 괴시마을은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지형 속에 자리해 있다. 마을 앞은 기름진 영해평야가 펼쳐져 있고, 남동쪽의 망일봉에서 뻗어 내려오는 산세가 마을을 입사자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고, 송천이 평야를 동서로 관통하며 동해로 흘러간다.

동쪽으로 산을 등진 지형의 특성 덕분에 괴시마을 최초 입향 가옥인 영양 남씨 괴시파종택(槐市派宗宅·경북 민속자료 제75호)은 서향으로 지어졌고 이후의 집들도 안채는 서향으로, 사랑채는 남향으로 건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지형에 순응하면서 긴 세월 반가의 전통과 관습을 품어온 40여 호의 전통가옥 중에는 경북 민속문화재 4건,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건물이 12건이나 된다.

이러한 자산과 배경 때문에 괴시마을은 2021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민속문화재 제 301호로 지정 고시됐다. 마을이 지정된 것은 전국에서 8번째, 경북에서는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 영주 무섬마을, 성주 한개마을에 이은 5번째 경사였다.

오늘날 괴시마을이 이렇게 문화재로 인정받기까지는 약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집과 마을을 가꾸고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문화재 마을'의 진짜 '문화재'는 기실 그 안에서 희로애락을 묻고 살아온 사람인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바로 이 점에 착안했다.

괴시마을의 주인공은 한옥이 아니라 그 모두를 품고 지키며 고택과 함께 고졸하게 늙어온 어르신들이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보살피고 기록하는 것이 첫 걸음이어야 했다.

이분녀 괴시리 노인회 총무의 회고에 따르면 40여 년 전 1981년 노인회가 생길 때만 해도 마을은 빈집 하나 없이 번성했고 문중의 대소가에 어르신들도 많았다 한다.

경로당에 나오실 때도 모시 한복 뻗뻗하게 풀 먹여 다려 입고 출타하실 정도로 말이나 걸음걸이도 곱고 품격이 높았다 한다. 그런 어르신을 모시느라 마을의 젊은 여인들은 조를 짜서 돌아가며 밥을 했다.

하지만 세월 따라 어른들은 매년 세상을 등지시고 마을엔 빈집이 술하게 늘었다. 현재 노인회의 인원은 25명 정도이지만 그나마도 해마다 요양원으로 가시고 운신이 힘들어 집에 머무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경로당을 찾아오는 어르신은 12명 정도. 매일 7-8명 정도가 건강하게 걸음하신다고 한다.

고택과 한옥은 수리하고 보수하고 재정비하면 오래 보존할 수 있지만 시간의 무게에 무너져가는 어른들의 정신력, 기력, 기억은 하루가 다르다. 하여 평생을 괴시마을과 함께해 온 마을의 진정한 주인,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하루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하여 이 거칠고 설익은 기록물을 세상에 내놓기로 한다.

이 글은 윗세대에 대한 지극한 감사와 존경을 꼭꼭 눌러 담은 헌사이기 때문이다.

\* 덧붙이는 말 : 글은 되도록 할머니 구어체 언어를 그대로 살리면서 느낌과 감정을 담고자 했습니다. 사투리와 해독이 힘든 부분은 읽기 쉽도록 불가피하게 풀어 썼음을 양해바랍니다.

chapter02

# 100년의 삶, 아직 진행 중인 이야기들

— 괴시마을 할머니를 만나다

## 그곳에 나의 어머니가 산다

신위성 (1928년 무진생 95세)

신위성 할머니를 뵈러 사곡댁에 처음 들어선 것은 9월 중순.

나락 익기 좋으라고 가을 땡별이 이어지는데 그래도 오전의 대청마루는 선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앉은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가 방석을 내주십니다.

사립문이 열리고 달길 때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닫겼습니다.”

움직임 감지 센서를 장착한 기계가 말을 겁니다.



“119가 설치해놓고 갔잖아.  
문만 열면 ‘문이 열렸습니다’. 닫으면 ‘문이 닫겼습니다’ 해주지.  
화장실에도 119가 비상벨 달아놨잖아.  
화장실에서 자빠지면 누르라고…  
세월도 좋다. 방에서 방송도 나온다. 요일도 나오고. 양력. 음력, 하하”

사람이 들여다보고 운신은 편하신가 살펴야 하는데, 기계가 지켜보고 알려주니 것도 기특하다 자랑하십니다. 불청객이 찾아간 건 오전 10시경. 새벽 4시부터 왔다갔다 하셨다길래 식사는 하셨나? 여쭙었더니 이제 막 한술 뜨셨답니다.

“뭐 별로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괴시마을에서 연세는 가장 고령이지만 시력, 기억력 정확하고 다리힘도 있어서 유모차 밀고 만세시장도 거뜰히 다니신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어데 갈라고”

할머니의 눈동자가 저 멀리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작나? 나가 구십다섯인데 모.  
자주 아파서….  
아파야 가지 안 아프고 가나?  
실실 아프다가 갈 적에는 고이 잘 가야 할 낀데…”

그리 말씀해놓고 사부작사부작 이야기가 시작되니 조그만 소녀도 되었다가 스무 살 처자도 되었다가 얼굴이 화안해지십니다.

그렇게 신위성 할머니와의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허현정 작가(이하 허) 할머니 성함, 신위성은 무슨 뜻이 있어요?

신위성 할머니(이하 신) 위가(외가)에서 낳았다고 위성이란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가 친정 가서 낳았단다. 요즘도 만이는 친정 가서 낳잖아. 그래서 위가에서 낳았다고 위성. 만딸. 울 어매가 만딸이고 나도 만 딸. 울 어매는 백 몇 살에 돌아가셨다.

허 몇 년생이세요?

신 용띠 무진생, 1928년. 내 출생신고가 좀 늦대요. 내 만이가 또 있었어. 이전에는 흥진 앓고 이래가지고 아기 때 많이 없었더니. 그래서 출생신고 안 했다가 지 동생 나고 하면 또 귀찮다고 안 하고… 내 동생 낳아가지고 출생신고 하러 가니까 나는 출생도 안돼 있더라. 그래서 쌍둥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나를 그때 호적에 먼저 올리는 바람에 내 뒤로 내 동생, 형제들 줄줄이 2년씩 밀렸다. 모두 두 살 늦다.

세상에! 그렇다면 호적상으로 95세이지만 실제로 97세라는 말씀!

신 이전엔 그랬다. 흥진 같은 거 돌면 동네 아이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러니까 ...  
요새는 글을 알지만 옛날 촌에는 농사짓고 살고 이러니까 출생신고 귀찮거든.  
그런데 울 아버지는 글을 알았어. 그래도 출생신고는 진작 안 했다.

허 고향은 어디세요?

신 지품면 신안동 묘안. 동네가 꼭 묘 안 같아서 묘안. 우리 성씨 신가만 살아.  
동네 이름이 묘안.

묘안에 파묻혀 살던 산골 소녀에게 어느 날 꿈도 못 꿀 사건이 생깁니다.  
지금껏 살며 제일 잘한 일, 할머니의 자부심입니다.

신 내가 지금 이래도 지품초등학교 나왔다. 예전에 인구 조사 오면 사람들이 그랬다.  
옛날에 딸아이 학교 보내면 애 버린다고 야단났는데 우째 할머니는 학교를 갔나?  
묻는다. 부잣집이었나? 칸다(그런다)

우리 사촌 오빠가 그때 지품초등학교 선생했다. 일제 때. 우리 사촌오빠가 나 데리고  
가 학교 넣었다. 그랬더니 백부들이 '나가 지 사촌들을 눈 밝힌다고 학교 넣어서  
딸 망친다'고 야단야단 나고 꾸지람을 하고. 우리 집안에 나만 학교 갔다.  
조카가 그래 췌게 나오니까 우리 부모님이 췌지. 우리 동네에도 우리 학교 다니는  
아는 하나도 없거든...

그래도 그때 공부를 해놔서 요새 뭐 물어봐도 대답하고 내가 뭐라도 쓰고 ...  
안 그러냐. (학교를 다녀서) 한문도 알고 아라비아 숫자도 안다. 그때는 한문하고  
일본글하고(배웠지) 한글은 안 배웠다. 한글은 초등학교 졸업한 후에 좀 배워가지고  
긱적거린다. 그래도 푹푹하다는 소리는 듣는다. 내가!

허 학교 다닐 때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공부 잘했어요?

신 공부는 못하고 노래 잘하고 달리기 잘했다!(웃음) 그래도 우리 주인양반 계실 때  
편지가 오면 주소를 보고 '어디서 왔네요' 하면 '자네 언제 글을 배워서 한문을 다  
아노.' 이랬다. 획수가 많은 건 몰라도 웬만한 한자는 알아. 어메가 일하러 가면 나는  
밥하고 집안일하고. 그래도 나는 들일하고 그런 건 꺾어보지 않았다. 청년들하고  
까불고 놀고... 내 동생은 어메가 들에 가자고 하면 같이 가고 그랬는데 나는  
까불고 일도 안 하고 놀러 다녔지. 맏딸이라고 부모님들이 우선했잖아.

그렇게 명랑소녀로 자란 신위성은 스무 살에 영양 남씨 문중으로 시집오게 됩니다.





신 내가 스무 살에 이 집에 시집와 가지고 95살이니 얼마고... 까맣다.  
근데 결혼할 때 몰래 보니 신랑이 내보다 인물 못하더라.(웃음) 결혼해서 오니  
논도 많고 밭도 많고 머슴도 많고. 작은 머슴은 쇠꼴 풀 벤다고 들여놓고 큰  
머슴은 농사짓는다고 들여놓고... 농토도 많더라고... 그 농사를 못 지으니까  
많이 팔고 지금은 다섯 마지기 남았지. 부잣집이니까 지품에서 여까지 시집왔지.  
사랑어른(시아버지)도 그렇고 주인양반도 노역은 안 해. 사랑어른 선비고 주인양  
반은 돈벌이 한다고 직장 다니고.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도 들일 할 게 있나. 머  
슴들이 하고 일꾼 사서 하고... 논 메고 밭 메고 하는 사람보다는 편케 잘 살  
았지. 옛날에는 돈이 귀했다. 그래도 주인양반이 돈 버니까 돈도 얻어 썼고...

스무 살 꽃각시로 시집와 무려 75년. 남씨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막 시집왔을 땐 현재의 집이 아니었다죠.

신 그때는 양철 지붕 집이었다. 초가는 가난한 집. 우리는 양철집. 시집와서 그 집  
에 살다가 이듬해에 이 집을 샀잖아. 20살에 시집와서 22살에 주인양반이 영덕  
군청에 근무해 가지고 이 집 샀다.

내가 24살에 이 집에서 만이를, 아들을 낳았다 아들 넷, 딸 둘. 아들 사형제 줄  
줄이 낳았다. 내가(아들 줄줄이 낳고) 하늘에 올랐더라. 이 집이 아들, 손이 귀한 집  
이라...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반가워서 입에 혀처럼 하셨지.

내가 인물 좋지. 내 이래도 젊을 땐 인물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딸  
이 일곱이었는데 다 없애고 아들만 사 형제 딸 하나하고 오남매 키웠는데 그래  
서 우리한테도 애들 이름, 명 길게 이름 지으라고... 얼마나 식겁을 했으면...

그래서 큰딸 이름도 아름다울 미(美)자에 목숨 수(壽)자 해서 수미, 작은딸은 수  
경이라고 저 아버지가 지었다. 명 길게 살라고. 우리 시어머니야 옛날이라서 관  
리를 못해서 그렇지. 아프면 파뿌리나 달여 먹이고 하면서 아이들을 없앴지만  
그래도 우리 주인양반은 공직에 있어서 아프면 병원 가서 약 타오지. 그래서 다  
살았지.

사식 얘기가 시작되니 혼장을 단 듯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손 귀한 집에 분꽃 같  
은 며느리가 들어와 장손부터 쑥쑥 낳아놓으니 시어른의 사랑도 남달랐답니다.

신 영덕 군청이 여기서 40리 아이가. (남편이)아침으로 출근하는데 밥해 가지고 도시  
락 싸다녔다. 내가 힘들어 보이니까 우리 사랑어른(시아버지)이 “저 아기 딸린 게  
젓 먹고 밤에 잠도 옹게 못 자는데 조석으로 밥하고 도시락 싸고... 아기 예  
미 힘들다. 살림을 내주자” 해서 영덕에 방을 하나 얻어주셔서 첫아들 데리고  
영덕읍에 가 살았다.

거기서 아들을 셋 줄줄이 낳았다. 둘째, 셋째, 넷째 아들, 다섯째 딸 영덕에서  
낳고 막내딸 여기서 낳고. 딸이하고 꼬랑지만 여기서 낳았다. 전체 6남매. 영덕

읍에서 12년 살다가 우리 사랑어른(시아버지)이 편찮다가 돌아가셔서... 다시 돌아왔지.

현재의 집은 2002년에 문화재 자료로 등록되어 문화재청에서 원형대로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대략 15년 전 일입니다.

신 문화재청에서 와서 다 털어버리고 기둥 뼈만 세워놓고 새로 했잖아. 안동 도산 서원 고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집 수리했다. 겨울에는 일 안 하고 2년 고쳤다. 잘했어요. 우리는 수리한 지 15년 돼도 흠 한덩어리 안 떨어지는데 딴 집들은



흠이 떨어지고 해서 재공사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까딱 없어요. 딱딱하게 잘 고쳐놨어.

우리도 상량(대들보) 거는 날에 붓 베투 다 사놓고 있었다. 상량 걸 때 온시루떡 해놓고 고사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상량이 말짱하다고 나무도 말짱하고 참하다고 들보 새로 안 올리고 옛날 것 그대로 뒀어. 우리는 상량식 안 했잖아.

(집 수리한 뒤에) 정지(부엌)가 술아졌어.(좁아졌다) 정지가 작아서 저쪽으로 정지를 빼려고 하니 기어이 도면 있는 대로 해야 한다고 해서 정지가 쪼매니더.

밖에 화장실 내고 여기는 정지만 했으면 넓을 건데... 안된대. 도면대로 딱 해야지. 안 하면 내 밥줄 떨어진다하니 우야노. 내가 남의 밥줄 끊을 일 있나...

작년에 남동생이 대구 있는데 “누님 연세도 많은데 목욕탕 가지 마시라. 대구에 누가 목욕탕 가서 자빠져서 죽어가지고 목욕탕 문 닫았다고.” 간이 목욕탕 사가지고 넣어 줬다. 그래놓으니 화장실이 더 술아.(좁아)

그렇게 2년 공사를 거쳐 옛 모습으로 복원된 영덕 괴시리 사곡댁 盈德 槐市里 沙谷宅. (경북 문화재 자료 제425호)

남용南鎔이 조선 고종 37년(1900)에 건립한 것을 1942년에 남응호(신위성 할머니의 남편)가 매입하였습니다. ‘사곡댁’이라는 택호는 현 소유자 남명순의 할아버지인 남조영의 처가 동네 이름인 경주 사곡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정면 4칸·측면 5칸의 □자형 건물로 자연석 기단과 자연석 주초 위에 네모 기둥을 세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시국은 할머니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신 밥맛도 없고 목이 썩한 게 기침이 좀 나더라. 단골 권내과 가서 목이 썩하다고 하고 감기약 5일분을 지어다가 먹었는데 사나흘이 지나도 안 낫더라고. 목이 터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 “선생님요. 감기약이 왜 감기가 안 낫고 목이 썩하고 밥맛도 없고 그렇다” 하니 병원에서 “그 약 잡숫지 말라” 그래.

우리 삼종질이 와서 보고 “약 지으러 가는데 아지매 혼자 가면 안 된다. 이번 약은 여기 병원에서 안 된다 저 종합병원에 가서 지어야 된다” 이러대. 그런갑다 하고 코로나는 생각도 안 했지. 그런데 우리 삼종질이 동장한테 전화했어. “코로나 같다”고… 울산 있는 우리 큰아들한테도 전화했다. 야는 대구에 있는 지 동생한테 전화해서 “큰일났다. 엄마가 코로나란다.” 그래가지고 누워 자다가 깨서 옷 주워 입고 문 닫아 걸어놓고 막 쫓아왔다. 대구에서 오면서 나한테 전화한 거라.

“엄마 옷 입고 앉아 있어라 저 약 가지러 간다.”  
“그럼 약 가지러 가는데 발가벗고 있을까 봐”

신 나는 벌써 옷 다 차려 입고 있었지. “내가 택시 불러 타고 가면 되는데 왜 이래 난리를 하노” 하니까 “아지매 혼자 종합병원에 가면 혼이 빠져서 답도 제대로 못할텐데…” 동장이 그러데… 아들이 차를 길에 대놓고 와서 “엄마 나오소” 하더라. 그제서야 가슴이 벌벌 떨리대. 아들을 보니까… 며늘하고 왔더라고. “차 후딱 타소.” 그런데 종합병원 가는 줄 알았는데 자꾸 영덕으로 가더라.

“야들아 왜 영덕으로 가나?”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보건소. PCR검사를 마친 할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 거기서 코로나라 카데. '이 병이 들려서 이제 죽었다' 싶더라. 집에 나 데려다주고 아들은 약 타러 갔어. 코로나는 나만 치러야 되지 아들 며느리한테 옮기면 우짜니껴. 무슨 문둥이 병이나 들린 것처럼 나는 방에 들앉았고 방문만 요래 열고 밥을 들여와 주면서 며느리는 눈물을 째째 흘리고...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아들 며느리는 부엌에서 밥 먹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가라고 해도 말을 듣나... "병 걸리려면 같이 걸려야지 이런 어매를 두고 어찌 갑니까?" 성질을 내더라고. 그럼 하룻밤 자고 가라고 했제.

다음날 아들이 집에 가는데 나는 대문 빗장을 질러놓고 여기 앉아서 울고 저들도 영영 울고 가더라. 어매가 죽은 것 같이... 나를 두고 가려니 뒤가 땡긴 거지. 그래 보내 놓고나니 밥도 안 넘어가고 눈물만 나더라. 근데 이튿날에 약을 먹으니 금방 좋아지대. 참말로 알긋어라. 금방 씻어낸 것처럼 나아요. 5일분 타운 약 이틀도 안 먹고 나왔다. 아직도 약 저기 걸려 있다. 그래도 한 10일 정도 아파서 누워 있었던 거지. 며칠 새록새록 앓았다.

하지만 코로나를 치른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신 나온 후에 먼 복지계에서 전화 왔다. 뭐 "서류할 게 있는데 한 번 나올 수 있습니까?" 하대, 복지계 가니 돈 10만원 주더라. 질병 실컷 앓고 돈 10만원 타 먹었다. 별일도 다 있네. 우리 뒤에 앓은 사람은 그것도 없다 하대. 앞집 할매하고 나하고는 타 먹었다. 그래 요새 누구 만나면 그런다. "형님은 때를 잘 만나서 돈 10만원 받고 우리는 죽도록 아파도 돈 일절 구경도 못했니더" 하고 웃는다.

할머니는 환갑부터 칠순 팔순 구순 모든 잔치를 다해보셔서 더 원이 없다 하십니다. 특히 팔순은 주인양반보다 더 좋은데서 멋지게 치르셨답니다.

신 할아버지(남편)는 칠보산 뷔페가 막 문 열었을 때라 팔순 잔치할 그릇이 없어서 거기서 못했다. 내 팔순 때는 잔치 상차림 그릇이 있어서 거기서 했다. 잔칫상이 37만원이라는 걸 40만원 주고 (주인 양반)잘 차리라고 했더니 진짜 잘 차려줬다. 문어도 이만한 거 사놓고. 현수막도 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 팔순하는데 뭐 현수막까지 하나?”  
 “아지매 당연히 해야 한다. 영감님 공직에 다녔지 잘 안된 게 뭐 있노.”

춤추고 노느라 마룻장이 꺼질 뻔 했다면 할머니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신 듯 합니다. 모든 잔치를 다해보고 일생 편히 살았다 하지만 몸에 밴 근검 절약의 습관은 나이 들어 힘 없다고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신 (벧물은) 마루도 닦고 걸레도 씻고 마당이 가물 때 퍼 부을 수도 있고... 받아 놔 두기만 하면 쓰는데 아이들은 발광을 한다. 수돗물 그래 아껴서 뭐하냐고... 하도 뭐라 해서 애들 보는 데서는 못하지. 애들 가고난 뒤에 비가 와서 받아 댔지. 옛날 초가집 같으면 물도 더럽지만 이 물은 깨끗하다. 그래서 저래놓고 맨날 쓴다.

오랜 습관 덕분에 며느리들과도 종종 다툼 아닌 다툼이 벌어집니다.

신 몸빼를 사다가 재작년에 좀 입고 작년에도 입었는데 앉아서 이래 이래 문대고 다니니까 엉덩이가 나가 버렸어. 인견 몸뻔데... 주머니를 보니 감이 똑같더라고. 내가 그래도 안죽 눈이 밝거든. 천을 잘라서 구멍 난 걸 잡고 있는데 셋째 며느



리 전화가 왔다. 이래 기어가지고 방에 가서 전화를 늦게 받으니까 “어머니 왜 전화를 늦게 받아요?” 그래서 “내 몸빼 낚는다” 아차차 말해버렸다.

“몸빼를 기워요?”

“떨어지면 기워서 입어야 되지 우야노”

“하이고 어른도... 요새 누가 옷을 기워 입어요?”

“뉘 기워서 입을 수도 있지”

신 그랬더니 이번 추석에 이거(새 몸빼) 사 가지고 왔더라. 인견 몸빼. 이걸 두꺼워서 좋다. 그래서 몸빼 기운 건 안 버리고 마루 닦을 때 입고서 기어다니고 이걸(새 몸빼) 그냥 다닐 때 입는다. 추석에 며느리가 와서 그런다.



“어머님요, 마루 닦는데도 그거 입고 닦으세요. 또 하나 사드릴게요. 기워놓은  
몸빼는 어딴어요?” “와? 뭐하려고?” “내가 버리려고 그러지” 그 며느리 임동 장  
쥘데... 저 술도 맥기(코팅)이 벗겨졌다고 몸에 해롭다고 못 쓴다고 버리라고. 버리  
라고... 가운데가 좀 벗겨졌는데 “나는 아무 일 없더라. 그런 게 해로울 것 같으  
면 내가 벌써 죽지 왜 나이가 95인데도 사나?” 하니까 이번에 올 때 암말 앓고 똑  
같은 술으로 하나 사 갖고 왔더라.

여기는 뭐 구워 먹고 이 술은 찌개 끓이고 두 가지로 쓸 수 있다.

과연 할머니는 셋째 며느리가 사준 새 술을 쓸 수 있을까요?

부엌이 아닌 안방 반닫이 위에 잘 올려둔 새 술은 뿌듯한 자랑거리로만 남을 것 같  
습니다. 며느리 칭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신 우리 며느리가 사람이 착해. 첫째 며느리는 저 하회 유씨 집안에서 왔다. 안동  
하회 마을. 양반 동네에 양반이 와야 되지. 둘째 며느리는 충청도 영동 정씨.  
우리 아들이가 서울에 있어 가지고 중신했다. 셋째 며느리는 대구 임동 장씨. 넷  
째 며느리는 원주 소백산 원씨. 거기도 나라에서 알아주는 양반 아이가. 막내  
딸은 강릉 김씨. 양반 집안에 시집 잘 갔다.

나는 며느리한테 “너 왜 그러나?” 소리도 안 해봤고 저(며느리)도 “어머님 왜 그  
래요” 소리 안 했다. 며느리하고 시애미하고 “너 왜 그러네?” 하면서 눈 한번  
흘긴 적 없다.

저러면 안되겠는데 싫어도 내가 참아버리면 되고 내 입만 안 떼면 그냥 넘어가고..

악쓰고 살 필요가 없잖아.

어떤 집에 보면

며늘하고 싸워 갖고 어찌고 하는데



며늘하고 싸워서 뒤흔다고.  
나는 그릇, 살림도 다 내주고.  
내 살았을 적에 갖고 갈 것은 갖고 가게 한다.

신 어제 부산 있는 손자가 20만원 주더라. 내가 한턱 낸다고 앞집에서 쟁반 짜장 시켜먹었다. 5명이서. 3만5천원. 돈은 모아놓으면 뭐하노. 눈 감으면 이 세상 하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누고 쓰고... 그럼 훗날에 다른 사람이 사고 돌고 돌고 그런다.

할머니 제일 아끼는 보물이 뭐냐 여쭙면 '가진 것 없다' 하시더니 술술 금불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신 내 팔순 잔치 때 금목걸이 10돈. 금팔찌 10돈. 반지 5돈. 쌍반지 5돈. 금시계 해주더라고. 딸들도 해주고. 금비녀 닷 돈. 머리가 있어야 찌르지. 그건 친정에 놔두고. 시계하고 반지하고는 내가 끼는 데로 끼다가 내가 죽을 때 큰 며느리 준다고 가지고 있었는데 추석에 큰며느리 왔대. 마트에서 계산하는 일 하는데 나이가 67살이야. 2, 3년 전에 거기 들어갔대. 요즘은 관두려고 해도 못 가게 한단다.

금시계는 살찔 때 찬 거라 요새 살이 빠지니까 이 놈이 이리 돌아갔다 저리 돌아갔다 한다. 추석에 큰며느리 왔대. 마트 마치고. 저녁때 늦게 왔대. 대목이라 바쁘잖아.

(금시계는) 그 며늘 줬다. 그니까 둘째 며늘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눈치 보여서 몰래 줬다.

“니가 이거 끼고 내가 없더라도 날 본 듯 조상 잘 받들어라.”  
그러니까  
“어머님요, 어머님요...” 하면서  
울면서 안 가지려고 하더라.  
그래도 쥐어 줬다.

신 큰며느리 환갑이 추석 때더라. 환갑 때 금불이 팔고 내 통장에 돈 좀 있는 것 빼가지고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생일 선물로 줬다.

내 정신 있을 때, 내 필요할 때 쓴다. 아들 며느리들한테 모조리 50만원씩 다 줬다. 지금은 금반지 하나 남았다.

이전 내가 끼다가 큰아들 줄라고. 남자 반지로 고쳐서 끼라고.

할머니의 영원한 주인양반, 남응호 어르신은 수리조합을 거쳐 농조(농지개량조합)에 근무하다 58세에 퇴직하셨습니다. 당뇨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5년 전 타계하셨습니다.

신 주인양반이 글을 하니까 동네의 일을 다 보고 수고를 많이 하고 살았다. 당뇨가 심해서 합병증 때문에 한 5, 6년 전에 먼저 가셨다. 아무거나 안 드시고 하니 내가 힘이 좀 들었지. 음식을 가려먹어야 되니까. 사위가 영덕 군청에 근무했는데 군에서 나오는 누에 가루를 몇 통이나 드셨나 모른다. 할아버지 는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포항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



서 병원 가고, 아이고 무시라... 당뇨 합병증 때문에, 아아들이 얹어진다고 꼭 비행기 타고 다니게 했다.

포항공항에서 타면 김포공항까지 딱 1시간이면 간다. 비행기는 지겹게 났다. 포항에서 비행기를 자주 타니까 내려올 때나 올라갈 때나 딱 앞 좌석. 내하고 주인양반하고 둘이 앉는 자리 빼놓는다. 호강했다. 승무원이 팔 잡고 데려다주고, 간식도 주고, 화장실 갈 때도 승무원이 붙들고 안내해서 가고.(웃음)

포항 병원에 입원도 서너 달 하고 고향 가까운 병원에 가겠다고 병원에서 보내주대. 119엠블런스 차 타고, 그거는 차비를 시간으로 받더라고. 돌아가실 때가 된 거라 집에 올 수 없어서 종합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가셨다. (조문) 손님도 많았다.

수리조합 직원에다가 아는 사람 많지. 선비가 되다보니 따르는 사람도 많고, 집안사람도 많이 오고.

그렇게 가시고 혼자 사니 편하고 좋네.

하지만 혼자 고택을 지키며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 떠난 남편의 신발을 사랑채 댓돌 위에 올려둔 이유가 있습니다.

도둑 7번이나 맞았다.

그 많던 소반이며 옛날 물건 싹 갖고 갔다.

그래서 사랑방 문 앞에 할배 신 갖다 댔다.

여기 사람 있다고.



.....

여전히 총총하신 우리 할머니.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따라 나오시며 슬쩍 물어보십니다.

“일본 아베 전 총리 총 쏜 사람 잡았대나?”

“영국 여왕 장례식에 사람 억수로 많대”

요즘 세상사도 관심 많고 초롱초롱 밝으십니다. 영국 여왕은 92세에 졸해서 전 세계가 추모하고 100만명이 조문했다고 하는데 95세(실제 나이는 97세!)인 우리 할머니는



이리 뽕뽕하게 천수를 누리고 계시니 관 속에 들어간 영국 여왕의 권세보다 더 낫습니다.

‘줄 게 없다’ 하고는 텃밭을 밟은걸음으로 다니시며 재래종 정구지(부추)를 수북히 끊어다 안겨주는 할머니 ...

험한 세월 앞에 육신은 낡고 굵었지만 마음은 다 퍼주어도 또 줄 것을 찾는 우리의 어머니가 거기 계십니다.

괴시마을 120년 사곡덕엔 고택만큼 나이들이 애뜻하고 아름다운 나의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 작은 거인, 신통방통 용알 할머니

김기응 (1934년 갑술생 89세)

400년 반촌의 품격을 간직한 괴시마을엔 역시 온몸으로 반가의 격조를 곳곳하게 지켜온 할머니 패션리더, 패셔니스타가 삽니다.

위아래 격의 없이 화통하고 개방적인가 하면 거리낌 없이 야단치고 전통과 예절에 대해선 엄격한 진짜 어른. 존경하고 존중받는 어른이 부재한 우리 시대, 꼭 닮고 싶은 워너비 할머니가 거기 계십니다.

요즘 할머니의 기억은 시계바늘을 돌려놓은 듯 새까맣게 오래전 옛일이 자꾸 새록 새록 토크토크 해지신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김기응 할머니의 타임머신에 탑승해볼까요?



“내가 4살에 젖 떨어졌는데  
 남동생이 나와서 큰집 큰어머니(조모)하고 살았거든.  
 종고모들이 사형제나 돼. 모두 큰집에 모였는데  
 날 안으려고 난리 난리. 요새는 더럽다 할긴데 찌쌀 입으로 씹어서 맥이고  
 단발해놓고 뽀뽀하고 ...  
 요새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억이 나는 기라.

친정 형제 7남매. 딸 다섯, 아들 둘인데 내가 둘째거든.  
 남동생이 나오면서 내가 우리집에 있었으면 좀 그럴긴데 ...  
 큰집에서 호강했지.  
 조모가 그때는 손녀를 더 이빠하잖아, 어매보다.  
 여름에도 당신 알몸에 이렇게 나를 품고 재웠어.  
 베 옷 아래 위로 입고 '양곰'이라고 옛날 치마에 터진 게 있었거든.  
 거기 나를 넣어서 숨통 열어놓고 이래 이래 손을 넣어가지고 머리 만져주고  
 대나무 부채질을 해주고 ...  
 그런 거 생생해. 점점 더 그 모습이 다가오는 거야.  
 그때가 다섯 살, 네 살 때.  
 자다 보면 우리 조모가 나를 이래 안고 방에다 눕혀놓던 생각도 나.  
 그래 그래 귀하게 컸지.”

허현정 작가(이하 허) **소녀 김기응은 어땠어요?**

김기응 할머니(이하 김) 우리 조부님이 안동 병산서원 원장하다가 일제 강점기 때 영양 면장에서 병곡 면장으로 발령받아 가셨어. 애들 교육에 지장이 있을까 봐 병곡면에서 10리 떨어진 원황리에 큰집을 마련해서 병곡 본교로 10리 거리를 걸어 다녔지. 옛날에 부잣집이라고 해도 요즘 없는 사람보다 더 못 살았다. 게다가

(일본 나막신) 신고. 10리 길 가면 가다가 중간에 끈이 떨어져서 (나막신이 땅바닥을 치는) 땡땡땡땡 종치는 소리도 나고, 술하게 자빠졌어. 5학년 때 해방이 됐어요. 그 후에 1년 더해서 6년 졸업을 했지.

**나는 진짜 신식으로 컸다.**

김 우리 언니는 고무신에 버선 신어도 나는 운동화 커버 양말 신고 그랬다. 피난 생활할 때 식량 없을 때도 쌀을 일곱 되나 퍼주고 구두 사주더라. 학교에서 통신부(성적표) 받아오면 우리 아버지가 “오늘 닭 한 마리 고아줘라.” 이랬다. 성적 잘 받아왔다고. 요새 들어 그게 자꾸 새로운 기라.

친정 우리 조부님이 선비이시거든. 근동에서 졸업하고 건들건들 노는 애들 한 20~30명 당신 방에 모아서 가르쳤어. 우리는 여자라고 근처에도 못 오게 해요. 아주 완고한 가정에서 자랐어.

16살에 사진 찍었다고 뚜드려 맞았다니깐. 타성 남자한테 요래 얼굴 들고 사진 찍었다고... 당시엔 완고한 할아버지가 미워서 별 생각을 다했는데 요새 돌아보니 그래도 그런 집에 자랐기 때문에 가정교육이란 게 됐잖아. 그게 평생을 좌우 하더라. 여기 양반동네에 와도 하나도 불편한 게 없더라. 우리 집에서 하던 그대로... 제사든 뭐든 그대로 하면 되더라니까.

할머니의 이야기는 괴시판 아라비안나이트, 끝이 없는 천일야화라 ...  
 바야흐로 괴시마을 며느리가 된 사연이 시작됩니다.

김 20살 가까워지니 혼인 말이 들어오대. 남자 자리가 여기(영해) 중고등학교 수험 선생이었어. 부산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사변에 본집으로 피난 왔기 때문에 학교를 못 마치고 돌아왔대. 혼인은 내일 모레면 다 성사되어가는 판인데 안어른(시

어머니이 뇌일혈이라고 쓰러지신 거야. 사변 중에 맏아들이 행방불명이 되면서 안 어른이 충격을 받아 속앓이를 하셨는데 갑자기 사경을 헤매게 된 거지. 저 방에 누워서 죽을 시간만 기다렸다 그래.

나하고 혼인이 내일 모레인데 장가는 다갔다 싶어서 남자는 기가 막힌 거지. 이 남자(남편)가 “내 형님이 계시면 차남으로 장례 치러도 되는데 형님이 안계시니까 상주 노릇을 하려면 장가를 가야한다.”고 고집 부렸대. 그래서 우리집에 혼인 승낙 받으러 어른들이 달려오신 거야. 납채(納采: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인을 허락받으러 오는 과정)가 들어온 거지.

이제부터 할머니의 본격적인 파란만장, 우여곡절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김 혼인을 승낙 받을 때 신랑 자리는 못 오고 우리 윗마을 고모 시아버지, 사장어른하고 우리 고모하고 우리 큰집 조부께 찾아간 거야.

“혼주 자리가 사경 중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돈이 알아서 꼭 되도록 해주소”

김 사정을 비는 거라. 우리 큰아배(조부)는 우리 모친한테 “혼사 일에는 내혼주가 으뜸인데 니가 가서(시집 갈) 당사자한테 말을 들어봐라.”했다. 모친이 와서 “야야 사장어른이 일부러 승낙받으러 왔는데 잘 생각해보고 입 떼라”하시더라. 아이고 내가 기가 맥히대. 나이 스무 살이면 요새 애들 같으면 밥투정할 때 아이다.

내 생각에 남편 자리도 학교 다니다가 학업도 중단하고 어매도 사경 중이시고, 형님은 잃어버리고... 무슨 마음으로 살겠노. 동정이 가더라고 자꾸. 배필이 되려고 그런 건지... 저 사람 하나 구하는 게 내 입에 매였구나... 싶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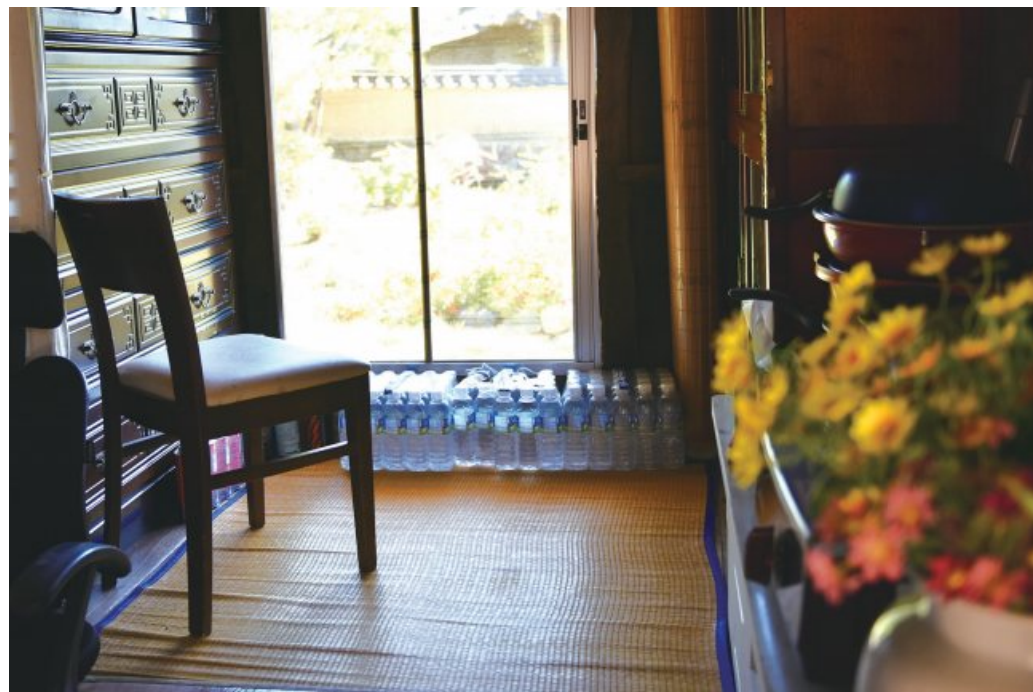
그래도 초상나면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안어른(시아머니)위해 곡을 해야 되잖아. 또 초상 상주는 ‘아이고 아이고’ 곡하다가 ‘오매요, 오매요.’ 불러가며 울어야 한단다. 법도가... 아무리 법이 무섭다지만 우에 내가 남의 어매를 부르면서 곡을 하노. 남새스럽구로. 어지간한 집 여식 같으면 안 간다 한다. 그래도 나는 모친한테 그랬다.

“안에 큰아버지(조부)께 말씀드리세요.  
암만해도 남자가 불쌍하고.  
또 이제까지 순조롭게 되던 일을  
상주된다고 (시집)안 간다고 하면  
향내에 큰아버지(조부) 위신도 있고...  
제가 우야겠니껴 (어떻게 하겠어요)”



김 그 정도만 얘기했는데 바로 알아차리지. 바로 “아이구 야야 고맙데이” 어루만져 주시더라 큰집에 가시대. “지가 큰아베 위신도 있고 그 남자도 생각하고 그랬니더” 하니 사장어른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내 그 소리 나올 줄 알았다.” 하며 무릎을 탁 치시더라. 그래 가지고 양가 대소 친척들 다 모아 놓고 혼인 승낙 받았다고 선포를 했다. 그래서 이 남자도 한시름 났지. 내가 그때는 배필이 될라카니 그런지 그 남자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 어지간한 집에서 컸으면 돌았나. 택도 없다.

(남채 들이고) 그 이튿날 초행(初行: 혼례식을 위해 신랑 일행이 신부집으로 오는 것)이 왔더라카 이. 요객(신랑집을 대표하는 혼주, 상객을 모시는 사람)하고 남자 몇이 호지마을에서 초행을 꾸며가지고 왔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왔는기라. 꽃꽂이 하고 제삿피고 대나무 뒤안에서 꺾어와서 청실홍실 걸고... 급히 와도 트렁크에 원삼은 넣어왔더라. 그런데 우타(원삼 안에 입는 홍치마 연두 저고리)가 없잖아.



그때 우리 언니가 첫 친정나들이 와 있었는데 자기 우타를 걸어놨더라. 언니가 나보다 키가 작아서 좀 짧더라마는... 언니 입던 걸 입었잖아. 그때는 숙부가 신부를 안고 행여칭(혼례하는 초례칭)에 나가대. 아이고 남새시러라.

초례칭에 서보니까 자꾸 신랑이 궁금하더라. 원삼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 신랑이 안보이는데 궁금하니까 신랑 보려고 눈을 자꾸 치뜨게 되더라고. (얼굴 가리고 있던) 신랑도 그렇더라.

그래가지고 행여(혼례식) 마치고 내 방(각시방, 신방)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술한잔 하고 우리 어른이 신랑을 빨리 돌려보냈다.

안어른(시아머니)이 일 분 일 초를 다투는 때잖아. 사람들 모두 돌아가고 우리 노친이 “야야 암만해도(이리 급하게 혼례를) 하는 거 보면 안사돈은 분명히 돌아가신다. 밤새라도 돌아가신다.” 하셨어.

우리 집에 그때 미싱이 있었거든. 팔촌 동생 오라고해서 그 밤에 버선하고 소복을 두어 벌 만들었어.

그런데 다음날 식전에 부음이 온 거라.  
밤새 돌아가시겠다 했는데  
실제로 (안어른이) 가신 거지.

김 식구들이 깜짝 놀랐다. 나는 진짜 기가 막히데... 급하게 벼락 혼례를 지내고 그 이튿날에(시아머니) 부음이 온 거니까. 내가 그때까지 머리는 올렸지만 육체는 처녀야. 내가 시댁 가서(낮 모르는 안어른을) 우에 불러가며 울어야 되노 싶어서 “안간다!” 강짜를 부렸더라 우리 모친이 울고 난리가 났다.

“그따우 생각하지도 마라. 니가 간다고 했잖아.” 기가 막혀서 혼자 가만히 울었지. 어른들 보시면 뭐라 할까 봐 표도 못 내고, 법도를 어찌 어기고 사나. 이 때나 저 때나 법도가 있는데...

급하게 납채가 오고 예복도 갖추지 못한 채로 초례를 올리고 났더니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잠시 스쳐본 신랑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데 벌써 남씨 집안 며느리...

보지도 못한 시어머니 초상에 가야되게 생긴 겁니다. 발에 흙도 묻히지 않고 자랐는데 상상도 못해 본 벼락 결혼을 하게 된 할머니. 스무 살 꽃각시의 인생 반전이 펼쳐집니다.

김 이제 신행(시집에 처음 가는 일)을 가야하는데 가마꾼들이 큰집 창고에서 가마를 메고 나왔네. 포장을 벗겨보니 허연 색 가마더라고. 그거 나보고 타고 가란다. 호지마을에 간다고... 그제야 실감이 났지.

가마에 탔는데 조부님이 내려오시더니 “초상 상주는 어설퍼야 된다. 화장도 하지 말고 머리도 빗지 말고 추레하게 슬픈 표정으로 가야 된다.” 그러서. 그 당시 초상상주는 사흘 세수도 안 했다. 3년 동안 버선, 소복도 그대로 입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조금 신식이거든. “아이고, 아버님 사랑으로 그냥 올라가시쇼. 암만 그래도 야가 시택 첫걸음인데 세수도 안 하고 가니껴.” 조부님이 올라가시니까 나한테 “화장은 하지 말고 세수하고 머리는 대강 가려라.” 그러시대.

그래서 구리무(화장품)도 하나 안 발랐어. 그래도 그때는 얼굴에 티끌 하나 없제 생김새가 오목오목하니 별로 보기 싫은 게 없었지.

읍내까지 가마 타고 가는데 영해 정거장까지 오니까 호지마을에서 가마꾼 넷이 나왔어. 또 그 가마로 갈아타고 질뚝질뚝 갔다. 그때는 멀미도 안 나대. 한편으론 슬프고. 한편으론 그래도 신랑 본다고 좋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 집 대문에 들어왔다. 가마꾼들이 마루에 가마를 척 걸치대. 가마 문을 여니까 비녀 머리 풀고 산발한 말동서가 나를 이래 잡고 내려주대. 동서가 내 머리를 풀어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대. 머리가 엄청 길었어.

이 앞에 사는 용이 아배라고 재종질이 지금도 그런다. 학교 갔다가 새색시 왔다고 해서 보러왔는데 하늘에 선녀가 내려온 것 같더라고...

학같이 목은 길고, 흰 소복을 입고 있으니 그리 보이더라. 그런데 나는 내가 왜 이런 복잡한 일을 겪어야 되나 눈물이 나더라. 상가에 문상도 문상이지만 색시 보러 사람들이 더 왔다. 동네 사람 다 왔다.

그래 가지고 상주 역할하면서 “어머니요” 하고 부르면서 울고. 염할 때도 다 보고. 흥곡이라고 아침 저녁을 울잖아. 다음날 그거 하는데 신랑이 옆에 서 있거든. 형이 없으니 혼자 서 있고 우리 동서끼리는 앉아서 곡하는데 나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했어. 남새스러워서(남부끄러워서). 곡도 곡이지만 신랑이 옆에 있으니까 연애하는 것처럼 가슴이 벌렁벌렁하대. 그 후에 우리끼리 살 때 그러잖아. 영감이.

“나는 어때 돌아가시고 곡할 때 가끔 시선은 자네한테 가더라.”

김 서로 그랬어. 그렇게 하고 친정에 돌아왔으니 신랑 손도 못 잡아 봤지. 그래서 10월 스무 하룻날 다시 날 받아가지고 결혼을 했잖아. 행여(초례)는 그전 했으니까 안 하고 첫날밤 자고. 대반(對盤: 신부측에서 의식을 도와주는 이)이 안내해서 큰 상 받고 떠먹여주는 데로 먹었다. 첫날밤 이후엔 3일은 나가서 자고 3일은 같이 자고... 아이고 복잡하다. 그렇게 다 했지.

첫날밤에는 신사적이야. 그냥 곱게 이야기만 하고 그랬는데도 옳게 못 잤어. 이틀 자고 사흘 만에 나가 자거든. 신랑이 나가니까 허전한 게 이상하대. 내가 이전까지도 20년 동안 혼자 있었는데 하룻밤 자고 간 신랑이 왜 그리 생각나노 싶은 기라.

그날부터 부부간의 정을 알게 됐지. 이후로 일평생 우리는 눈 한 번 안 흘리고 살았나더.



허 그래도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시집살이는 면하셨어요?

김 시집 오니까 집 꼴이 아니더라. 6.25사변에 말분(시아주버니)이 행방불명 되셨으니 집안이 우찌 됐겠노. 딸 하나 두고 혼자된 동서는 히스테리를 부리고 난리가 났지. 젊은 고비 넘기느라고 안 그랬겠어. 생각해보면 다 이해는 가. 그거 참고 사느라고 진짜 7, 8년 고생했다. 만동서 눈치, 시집살이 말도 못했다. 내가 둘째한테 시집와 가지고 그래도 아들 낳아서 대를 이었잖아. 옛날에는 큰집에 아들이 없으면 바쳐야지. 큰집 대가 끊기면 안되니까. 내가 아들 낳았을 때 대통령 난 것처럼 향내가 떠들썩했다. 시어른이 너무 좋아하셨지. 막내도 아들을 낳았잖아. 그래서 아들 둘, 딸 둘. 그래 낳아 놓으니 집이 되더라. 시어른은 늘 “자네가 와 가지고 집 꼴이 된다” 하셨다. 칭찬을 해주니 더 잘하고 싶은 거지.

우리는 혼자 있는 동서한테 뭐 야단스럽게 부부간이라고 잘 지내는 것 보여주는 것도 미안해서 같이 웃지도 못했다. 토요일 일요일에 같이 앉아서 밥 먹다가도 우리 동서가 들어오는 대문 소리 들리면 내가 이쪽 문으로 남편 밀어냈다.

“나가소 나가소 하고 ...”

김 둘이 마주 앉아 밥 먹는 거 동서가 보면 얼마나 부럽겠노. 부부 생활해본 사람은 이해하지. 늘 가엽게 생각했다.

7, 8년 동안 만동서와 같이 살 때는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때는 혈압이라는 병명도 몰랐다. 턱까지 뒤통이 딱 치밀어 오르는 기라. 땀은 감 먹은 거 모양. 그래도 내가 입을 안 뻐다. 장날 친정엄마 만나면 “동서가 뭐라고 해도 갈구지 마라. 어느 가정이라도 혼자 있는 사람 하고 고아가 제일 불쌍타. 너는 암만 속이 썩어도 남서방이 있지 않나. 남서방만 쳐다보고 있으면 태산이 평지가 된다” 맨날 말씀하셨다.

그 동서가 결국 아파서 우리집에 계시다 돌아가셨다. 82세에. 내가 손자 키우면서 왜관 큰아들네에 있을 때 6개월 동안 모시고 간호했다. 내가 그랬다.

“형님요. 자식 집이 내 집 아니껴.  
익순이(큰아들) 형님 아들 아니껴.  
맘 편히 계시소”

김 아픈 환자 눕혀놓고 매일 마사지했다. 염색도 해주고. 동서는 노환에 우울증도 있었어. 남편 평생 그리다가 이제 죽는다 싶어서 불쌍터라. 고등어도 뻐 발라서 살만 주고...그게 다 산 교육이 되더라. 아들한테도.

허 예부터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했는데 어떠셨나요?

김 내가 들어와 가지고 아들 낳아서 이 집에 바치고 대를 이어왔지. 사남매를 낳아 놓으니 어른이 내 별명을 용알(용의 알)이라고 불렀다. 용의 알은 귀하잖아.

시어른이 상방에서 돌아가셨는데 며느리인 내 손을 당신 가슴에 얹어놓고 운명 하셨다. 나를 정말 이뻐하고 아껴준 어른이었다. 그때 나는 객지에 나가 있었는데 그날 따라 오고 싶더라니까. 그날 운명하신 거지. 희안해.

우리 형님, 만동서가 평생을 받들고 같이 살았지만 어디 가버리고 없었고 내가 임종 지켰다.

돌아가신 후에 안장할 터가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는데 꿈에 나오셨어. 흰머리 뽀뽀 깎고 배자를 입고 나타나셔서 “내 땅 놔두고!” 이러시는 거야. 시어른이 사 둔 산이 좀 있었거든. 300, 400평 정도.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산에다 묘소 썼잖아.

내가 시집와서 첫아들 낳고 얼마 안됐을 때 시어른이 친필 두루마리를 주셨어. 논어 학이 편을 손수 옮겨 쓰신 건데 나한테 맡기셨어. 며느리가 이쁘고 자랑스러우니까 뭐든 주고 싶으셨던 거라. 잔글씨를 이만치 쓰는 것은 정말 드물잖아. 요즘 봐도 놀랍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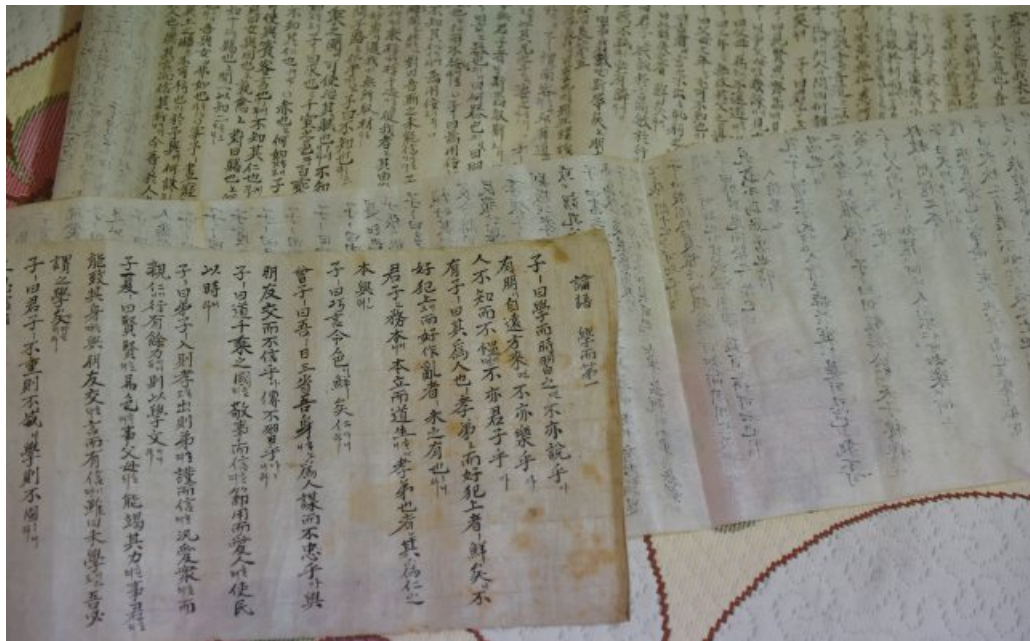
용알이라고 별명을 지어줄 만큼 며느리를 애지중지 아꼈던 시아버지.

2미터 넘는 얇은 한지에 빼곡히 쓴 논어 필사본은 지금도 할머니의 보물 1호이자 든든한 자부심입니다.

부전자전일까요. 할머니에겐 또 한 사람 응원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꾼 남편입니다.





김 우리 영감은 법 없이도 산다고 했다. 이 향내가 다 안다. 남의 여자라도 치마 입은 여자는 소중하다 하고. 천상 선비라. 엄마도 고마 만자식 잃고 신경을 워낙 써놔서 일찍 돌아가셨지. 6.25사변이 나는 바람에 대학 공부도 더 못하고 졸업장이 없는 게 이 남자 평생의 철천지 한이었다. 거기 포박이 되어가지고 텔레비만 보면 울고 이랬어. 그래도 위로하고 다독이니까 그 사람이 살았지 안 그랬으면 일냈다.

이 집에서 신혼 살 때야... 사랑채 문 열면 아래에 이만큼 사각으로 뚫린 구멍이 있었어. 신랑이 사랑에서 공부하다가 상방에 불일도 없으면서 색시 보고 싶어가지고 나오는 거야. 오다가 뚫린 구멍으로 이래 쓱 들여다 본데이.

내가 쪽 손 내밀어주면  
신랑이 내 손을 이래 이래 만지다가  
쪽 입 맞추고 간다.

김 동서가 있으니까 집안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 살았나. 신랑은 학교 선생 하다가 관두고 엽연초 생산조합에 들어갔어. 거기 들어가 놓으니 현지 답사를 해야 되는데 책상물림만 하던 사람이 뭘 아나. 경험이 없고 하니 처음에 애 좀 먹었지. 그래도 워낙 열심히 하니까 상도 받고, 시계도 타고 그랬어.

남편을 생각하는 할머니의 눈에 설핏 눈물이 고입니다.

김 큰애가 초등학교 다닐 땐데 인천 사택에 살 때야. 아침에 출장 나가면 저녁때 들어오잖아. 종일 못 보다가 저녁에 퇴근해야 나를 보는 거지. 그럼 발도 안 씻고 나한테 온다. 와서 자기 넓적한 발 위에 내 발을 얹어가지고 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끌어안고 춤추는 것처럼. 하루 종일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걸 큰아들이 공부방에 있다가 봐버렸어.

지가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는  
엄마를 이뻐했구나 실감했단다.

그리고 2003년 할머니는 특별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김 왜관에서 아들은 아파트 더 넓혀서 나가고. 우리는 아들 살던데 사는데 군에서 통보가 왔어요. 집 지키러 가라고. 누런 봉투에... 그게 2003년이었어. 영감이 "자네는 안 가고 싶겠지만 안 가고는 안 되겠다." 하시대. 이 집에 돌아와 보니 세상에 이전 살던 모양 그대로 복원해놨어.

화장실이 옛날에 어디 있었나 물어. 뒤편에 있었거든. 직사각형 그려줬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만들었어. 깨끗하게 수세식으로 해놨지. 방앗간도 있었는데 앞으로 짓는다고 하대. 우물도 대문 밖에 있었는데 그냥 우물 하지 마라 캬다. 왜 그걸 반대했냐면 우물 밑 파면 전부 지하로 전선이 연결돼 가지고 고장나면 안 돼잖아. 그걸 하지 마라 그랬잖아.

영해 구계댁(경북 문화재 자료 제396호)의 재탄생이었습니다.

2000년 경북 문화재 자료로 등록된 영해 구계댁은 2003년 복원을 마치고 할머니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구계댁'은 원구에서 시집온 시조모의 택호입니다.

1805년(순조 5년)경 소유자의 7대조인 남경악이 지은 건물로 1910년 경에 중수했다고 합니다. 마을의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서향하여 자리 잡았고 'ㄱ'자형으로 안채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겹집 구조입니다.

사연 많은 시댁으로 다시 돌아온 할머니의 감회는 한편 기쁘고 한편 아프고 슬프기도 합니다.

김 판동서가 평생을 여기서 살았잖아. 시어른 모시고 집 지키며 살았는데 아파가지고 이 집 짓는 것도 못 보고. 그게 내가 여한이 돼. 다문 1년이라도 좀 살아보



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알뜰히도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런 생각도 나고. 여름에 영감님 모시 한복 짝 입혀가지고 부채 하나 탁 들리고 모자까지 씌워서 마작하는데 보내고 그랬어. 고택하고 어울리라고. 이 집안에 맏이 아이가. 대문 나가다가 돌아보면서 빼꼼 웃고 그러더라. 좋아서.

그렇게 고향 집에서 멋진 세월을 만났나 했는데 막상 이 집에서 오래 못살더라.

꽃각시 시절부터 함께 주름살 세며 늙어간 세월 내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온 남편. 2005년 아십게도 먼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김 신랑은 엽연초 생산조합을 30~40년 하다가 충청도 홍성에서 정년퇴직하셨다. 53세에. 퇴직 후에도 쉼 없이 일하셨는데 병마가 깊어졌지. 당뇨 합병증이었어. 당뇨는 내림이래. 아들 왜관 있을 때 성모병원에 갔잖아. 한 달포 입원했는데 별 차도도 없고 병원의 의사도, 간호사도 집에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해드이소” 하대. 이미 당뇨가 악화된 상태였지.

고향 돌아온 지 3년 만에 2005년 돌아가셨다.

나이 75세였다.

75세면 요즘은 한창 나이 아이가.

김 멋지게 차려 입고 편히 마실 다니며 놀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게 한이 돼서 요즘도 우리 큰 애는 전화하면서 목이 멘다. 참 아까운 양반 흠에 묻는다 싶었어. 마음은 안됐지만은 더 뛰고 나는 사람도 흠에 묻는데 도리가 있나 큰맘 먹었지. 우리 영감 생전에 너무 행복하게 만족을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여한이 없어. 그만하면 행복했다 싶으니까 내가 무슨 한이 있나. 화통하게 털어버리지. (남편 따라) 따라갈 수가 있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우리 아들이 하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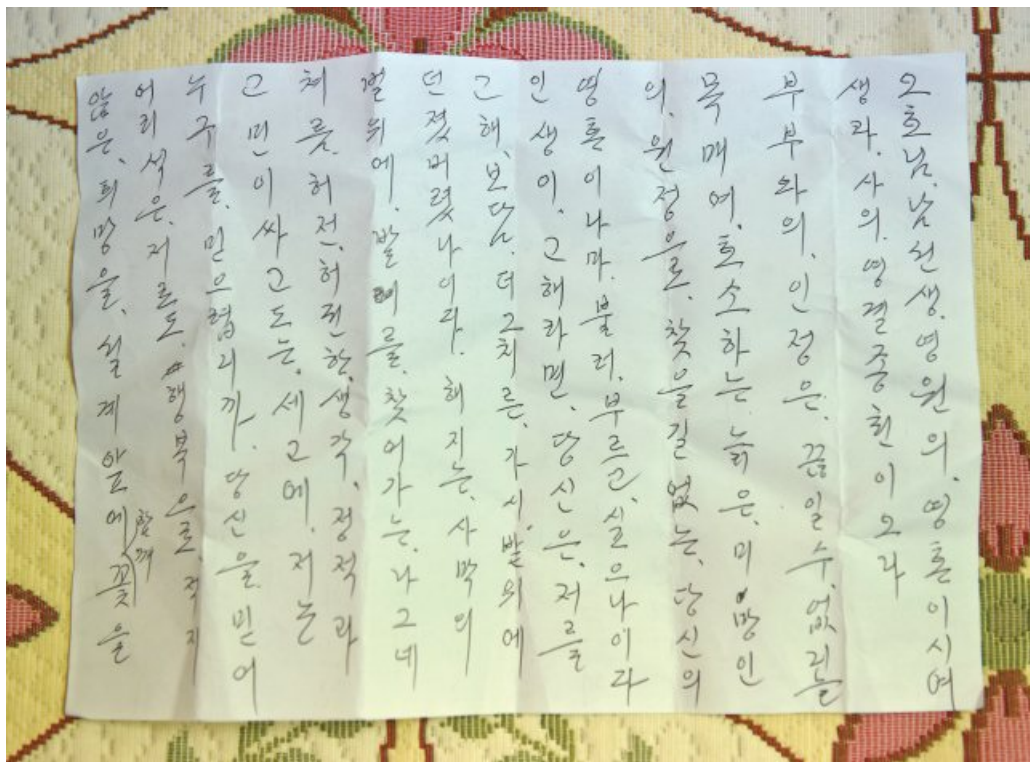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까?” 묻더라.

나는 “없다.” 잘라 말하지.

“아버지 원망하고 그런 것 절대로 없다” 하면

“맞네. 그러겠시더.” 한다. 지가 다 보고 컸으니까.

김 그래도 영감 가고 얼마 안됐을 때는 좀 어둑어둑해지면 쓸쓸하고 외롭고...그래. 이 큰집에 혼자 있으면 마음이 좀 이상하지. 그럴 때는 탁 일어나서 편지를 쓰는 기라. 신랑한테 편지를 쓴다. 그러면 다른 서글픈 마음이 없어지지. 애들도 모르는 일이야.



오호님 남 선생 영원의 영혼이시여.  
 생과 사의 연결 종천이 오나 부부와의 인정은 끊일 수 없거늘  
 목매어 호소하는 늙은 미망인의 원성으로  
 찾을 길 없는 당신의 영혼이나마 불러보고 싶어나이다.  
 인생이 고해라면 당신은 고해보다 더 거친 가시밭 위에 던져버렸나이다.  
 해지는 사막에 반려를 찾아가는 나그네처럼 허전한 생각,  
 정적과 고민이 싸고도는 세월에 누구를 믿으렵니까?  
 당신을 믿어 어리석은 저라도 행복으로 적지 않은 희망과 설계 앞에  
 함께 꽃을 따며 무궁무진한 영화를 누리려 했던 것이 지금은 허용이요, 공상  
 이요  
 그 자체도 희미하나이다.  
 그러나 저에겐 그대가 주고 가신 소중한 선물들이 있기에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몸이 그대 찾아 그 나라를 갈 때까지 고이고이 잘 계시오.  
 아득한 노부의 가슴에 물결치는 설움을 당신 무덤 위에 뿌려드리오리까  
 아프게도 당신의 생명은 아까웠나이다.  
 동짓달 긴긴 밤에 마음이 수수하여 한 자 적어보노라.

지금도 서랍장 깊숙이 간직된 할머니의 손편지. 뭐가 급하다고 먼저 떠난 남편을 향해 못다 한 말, 회한과 그리움, 사랑을 꼭꼭 눌러 한 자 한 자 썼습니다. 덤덤하게 읽다가 울컥 목이 맵니다.

.....

할머니는 열 손가락 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아들네 손자를 키우던 시절, 상처 난 손가락이 마를 새 없어 파상풍으로 번졌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서 절단까지 가야했습니다.

한 시절 참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이젠 아이들 키워낸 훈장으로 내놓고 활보하시는 할머니. 손가락이 하나 빈 할머니의 손은 끝도 바닥도 없는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식들 위해 그 많던 제사도 조매(桃埋, 5대조의 신주를 땅에 묻고 더 이상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신고하는 일) 했고 설 차례만 당신이 직접 제수를 마련해 지내신다는 할머니.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머니를 4남매는 존경과 애정으로 추앙합니다.

‘모든 일에 엄마가 최우선. 엄마 시키는 대로 하면 실패가 없다.’ ‘우리 엄마 같은 사람 하늘 땅에 다시 없다.’ ‘우리 이쁜 엄마.’

‘지나친 효자들’의 존경과 찬사는 어머니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인생 최고의 영양제이자 보약입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를 무한동력 슈퍼맨으로 만드는 건 자식의 존경과 사랑임을, 김기응 할머니의 삶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미안해, 어매가 참 미안해”

권영자 (1934년 갑술생 89세)

지나온 것은 사람이든 시간이든 적당히 포장되고 각색되어 추억으로 저장되기 마련입니다. 더러 나만 아는 부끄러운 시간과 사건은 기억을 삭제하고 없었던 일인 양 덮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수월하게 지난 시간을 나름의 방식으로 비우고 정리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돌림노래처럼 항상 제자리 걸기를 하는 기억의 구간이 있습니다. 살아낸 삶이 지독히 짝꿍했던 우리의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이미 다 흘러가서 사라진 시간도 어머니의 가슴엔 ‘미안함’ 그리고 ‘한스러움’이란 이름표를 단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괴시마을 오래된 고택 사이에 자리한 대궐 같은 신식 한옥.

거기 정 많고 한 많은 우리의 어머니가 맨발로 마중 나와 반겨주십니다. 신식 집 답게 널찍한 거실, 단차 없이 열려 있는 주방과 큼직큼직한 방까지 할머니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터를 구해 어머니를 위한 집을 지으려 했던 아들이 2018년, 100년을 내다보고 결정했다는 단단한 집입니다. 거실 입구 장식장엔 할머니의 든든한 수호천사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다 자란 손자 손녀들이 직접 쓰고 제작해서 선물했다는 감사패도 든든합니다.

“어제 우리 며느리가 전화했다.

“아이고 어머님 오래 사세요. 이제는 고향에 와도 참 좋아요. 빈집에 들어오는 것보다 어머님 여기 계시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소릴 들으니 마음이 다 찡하대.”

이젠 존재 만으로 큰 행복 주는 기댈 언덕이 되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권영자 할머니. 그녀의 삶을 되짚어보며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허현정 작가(이하 허) 할머니 친정은 어디인가요?

권영자 할머니(이하 권) 원구 2리. 남천 밑에 옥금이라고. 내가 6남매 중 맏딸이야. 차도 한번 못 타보고 20살 시집을 때 처음 동네 밖으로 나와 봤다니까. 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면사무소 근무하시다가 해방되고 몸이 안 좋아져서 퇴직하셨거든. 나는 초등학교도 다녔다. 영해초등학교까지 걸어 다녔잖아. 근데 5학년 때 해방되고 중퇴해버렸지. 그러니까 한글을 못 배웠잖아. 일본글은 다 잊어버리고 한글은 철자법을 잘 몰라요. 내가 책은 읽을 줄 아는데 우예 한글을 배웠는지는 몰라.

허 혼인해서 신행 온 집은 어디였나요?

권 시집 온 곳은 이 집이 아니라 괴시2리. 불 때는 오두막집이에요. 지붕을 짚단으로 이은 오두막. 스무 살에 시집와서 올해 결혼한 지 70년 됐는데 60년을 불 넣고 살았어요. 2018년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군불 때고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한 번씩 오면 또 뒷산에서 나무 해다가 장작 패놓으면 때고... 부엌이 3개예요. 나무 때는 아궁이가 세 개. 사랑방, 안방, 정지에 두 개 있고. 시집 와서 차차 방을 한 칸 두 칸씩 늘였는데 보일러는 못 넣었어요. 내가 시집오니까 시누이만 다섯인데 들은 출가해서 나갔고 세 자매가 있었어요. 그 중엔 학



교 다니는 11살짜리도 있었어요. 막내 동생을 키웠지. 모두 나 있을 때 하나씩 시집 보냈어요. 양반집이라고 시집가서 보니 사랑어른(시아버지)은 벌써 돌아가시고 안어른만 계셨어.

시집와 60년을 군불 때는 오두막집에서 살았다는 할머니. 더 기막힌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권 신랑 이름은 남.진걸! 스무 살에 결혼 해가지고 이듬해 설 쇠고 6월 달에 남편이 군대 갔어요. 그때가 휴전이 안되고 동난 막바지 전쟁 중이었는데.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딸만 오형제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13촌까지 가서 우리 남편을 양자로 들었어요. 17살짜리를 데려왔대요.



그렇게 대 잇겠다고 양자를 들였는데 전쟁통에 군대 갔잖아요. 그래서 의가사제대(개인적인 가정 문제로 인해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하는 것)를 시키려니까 하필이면 우리 시어머니 연세가, 호적이 늦어가지고 서른 몇 살밖에 안된대. 그래가지고 의가사제대도 안됐어요. 천만다행히 제주도에서 훈련 받고 서울 와서 배치 받고 나니 휴전이 돼서 총 들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만 3년 군대 생활하고 4년 만에 제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안어른(시아버지)이 얼마나 (손자를) 기다리는지 당신이 아들 낳으려고 그러다가 내리 딸만 오 형제 분을 낳았잖아. 그래서 손주를 더 목놓고 기다리는데 (내가) 임신이 안 되잖아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래도 항상 (아들 못 낳는) 죄

책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서울에 배치를 받고 제대를 했잖아요. 제대를 했으면 고마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집엔 안 오고 서울에 직장을 잡고 눌러앉아버렸어요. 색시는 시댁에 남겨놓고 직장 잡아서 서울에 있겠다카니 어떡해.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때는 살림나면 안되는 줄 알고  
고마 그리 기다렸다.  
안어른은 그 와중에도 손자 타령을 하는데  
신랑 없이 시집살이를 한 거지.

권 결국 군에서 4년 직장 생활도 3년 그래서 7년 만에. 스물 하나에 나가서 스물 일곱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몸이 안 좋아져서 서울살이 접고 왔다. 그때부터 겨우 합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 10년 만에, 서른 살에 첫애를 낳았어.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농사일 했어요. 전답 많지 않았어도 열심히 일하니까 먹고는 살았어. 남편은 잔정은 없어도 성정이 온순하고 마음이 고왔어요. 안어른 모시고 함께 살기 때문에 오순도순 지내지는 못해도 같이 농사일을 하면 늘 든든했지. 나는 서른 살에 우리 큰 아들 낳고 내리 고마 아들 셋을 낳아서 사형제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부터 별일 없이 주욱 같이 사나보다 했지.

근데 우리 막내 첫돌 지내고 그 이듬해  
고마 남편이 세상을 떠버렸어요.

권 갑자기 심장마비로. 시장 간다고 갔다가. 가다가 쓰러졌는지 그것도 몰라요. 쓰러져가지고 이미 명이 없는 거를 리어커에 싣고. 우리 집안사람이 덜렁거리면서 죽은 사람을 싣고 왔어요.



그때 남편 나이 마흔 살.  
우리 큰아가 12살 먹었어요.

권 막내는 지 아버지 얼굴도 모르지 첫돌 지냈으니까. 객지 떠들다 고향에 스물 일곱에 돌아와서 마흔에 저 세상 사람이 됐으니 13년 같이 산 거예요.

요만한 애들은 넷이나 되지. 어른은 계시지. 멀쩡히 장에 갔다가 송장돼서 돌아온 남편 보고 천지가 무너지는 거지. 이래 가지고 산다는 거가 무슨 뜻이 있겠노. 나쁜 생각도 했어요. 근데 내사 죽으면 편하겠지만 조롱조롱 달린 이 애들은 어떻게 하나? 생각하니 남편 따라가려고 하다가도 못 죽겠더라고요.

큰아가 12살 먹고, 둘째가 9살 먹고 셋째가 여섯 살 먹고. 막내는 첫돌 지내고. 고만고만하게 애도 많이 낳아가지고... 눈물 술하게 뺐어요. 여기는 촌이니까

밥 한술 뜨면 일 나가야 하는데 논이며 밭에 앉아 호미질 하며 많이 울었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일했지 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저를 우예 다 말을 하노.  
사람이 고생한다고 빨리 죽고  
힘들게 일한다고 빨리 죽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꺾어보니까  
내가 스무 살에 결혼해 가지고  
90까지 산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집안에서 갑자기 가장이 즐했으니 형편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모두 매달려야 하는데 네 아들은 커가고 교육이 문제였죠.

권 큰아이가 대구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둘째는 대학 갈 형편이 안되는데 제주도 있고 전교 3, 4등씩 하나까 담임이 믿고 구미전자공고에 원서를 냈어요. 딱 둘이 냈는데 둘 다 떨어졌어. 그래 가지고 여기(영해) 고등학교를 넣으려고 하나까 원서 마감이 된거라. 여기도 저기도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대구에 있는 지 사촌이 2차 들어갈 데가 있다고 불러 올려 가지고 고등학교 넣어주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3학년 때 나와서 형제끼리 있다가 경북대를 갔어요. 어찌 어찌 해서 위로 둘을 대학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셋째가 이(영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도 대학가 겠다고 나선 거야. 그런데 내가 농사만 짓는데 돈이 있어야 학교를 보내지. 셋째부터는 먹고 죽을 것도 없다고 대학은 아주 안 보낼 요량을 하고 있었는데 애가 막 나도 대학 시험이나 한 번 쳐보자고 우는 거예요.



내가 그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져...

권 그래 가지고 내가 시험이나 한번 쳐보자고 발악을 하는 거야. 니가 만약에 대학 걸려도 학교 못 간다 각오하고 가거라. 그래 가지고 서울로 갔어. 서울로 가 가지고 중앙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딱 합격 통지서가 날아온 거야. 그래 가지고 애가 통지서를 쥐고 들어오는데 내가 한 말이 있잖아요. “니 대학 못 간다” 이래 말한 게 있으니까 사립 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엄마 합격했다.” 하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차라리 떨어져 버렸으면, 가슴이 찢눌해지는 거라 저저를 우예하노 싶어 가지고 그래 갖고 결국은 지가 포기를 했어요.

내가 도시 같으면 광고라도 내 가지고 ‘우리 아 공부 시켜줘 가지고 아들 삼으라’고 내놓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지가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하나까. 아이고 내 아들 내가 아들 달라 소리 안 하나까 우리 아들 데려다가 공

부 시켜 가지고 아들 삼아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육사도 쳐서 떨어지고 우체국도 떨어지고 9급 공무원에 합격해 가지고 노동부에 들어갔는데 월급이 너무 작아요. 결혼은 했지. 그래서 공단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남매 낳아가지고 대학 다 시키고 돈 벌고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원하는 대학을 결국 보내주지 않은 어머니를 원망했을 법도 한데...

권 절대 원망 안 해요. 엄마 왜 나만 공부 안 시켰냐고 말도 빵끗 안 해요. 자식한테 참 미안해 가지고. 내가 한이 많아요. 지금은 직장 얻어 가지고 공무원 가 가지고 잘 사지마는 그래도 다 가는 대학을 못 시켰으니까 이제 또 시험에 걸린 걸 못시켰으니까... 엄마 마음에 평생 남아 있어요.



시집와 40년, 남편을 먼저 보내고나서도 괴시마을 밖을 나가보지 않던 할머니는 환갑의 나이에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서울 상경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권 우리 큰아들이 군대 갔다와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취직이 됐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 하숙방을 얻는데...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걱정하다가 내가 친정 가니까 우리 올케가 “형님요 어디 취직 자리 들어갈 데가 있는데 형님 할랍니까?” 하더라고. “어딘데?” 하니까 유치원이라 카는 거야. 유치원 밥해주는 일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맏이가 직장 됐는데 거처할 데가 없으니 나라도 올라가서 일을 해야 하나 생각했다. 그 유치원에 지하방이 우리 저 안방 만한 게 있어. 한 칸이. 거기서 살면서 유치원생 한 80명 밥해주고 그래 할라나? 이러는 거라. 욕심은 나는데 자신은 없고...

그래도 올라오겠다고 결정을 하고  
닷새 만에 서울로 이사를 간 거야.  
그래 가보니까  
작은 지하방에 이불 넣는 거 반 있고  
딱 셋이 자면 맞아.  
그렇게 해서 세 모자가 거처하게 된 거지.

권 내가 유치원에서 밥해줄 때가 60살이었다.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환갑 맞았으니까. 유치원 밥해주는 일, 3년 하니까 나가라고 하대. 나는 거기 좀 더 있었으면 싶었는데. 방 한 칸 쓴다고 월급 20만원 주더라고. 그거로는 3년 일해도 돈을 모을 수가 없지. 그래 가지고 여기(고향) 와 가지고 조합 빚을 1,100만 원을 내 가지고 성남에 아주 온지하. 물이 막 이래 차있는 온지하방을 1,200만 원에 얻었어.

나 63살에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지가 뭐 벌여놓은 것도 없고, 물 웅덩이 있는 온지하방에 지 양심 갖고는 신부를 못 데리고 오겠나 봐. 결국 받을 팔아서 조합빚 일부 갚고 성남에 신혼집을 마련했지. 그래 가지고 93년도에 큰아들 결혼시키고 한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큰며느리도 고생 많이 했어. 없는 집에 시집 와서 돈 벌러 다니느라. 백화점 아동코너 이불코너에서 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가구점 내서 아들하고 같이 지금까지 잘 하고 있어요.

제사도 우리 아들이 지내잖아.  
우리 며느리 올해 결혼한 지 30년인데  
처음부터 내하고 같이 살아가고  
내가 여기 제사를 받드는 걸 죽 봤잖아.

권 내가 저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고 같이 살면서 제사 받드는 걸 봤기 때문에 저들이 알아서 말아하는 거지. 너무 이쁘고 너무 기특해요. 저도 바깥 일 하는데 제사 모시면서 힘들다 소리 요만큼도 안 해요.  
말며느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랫동서들도 존경하고 잘 따라요.

원주 아들네에 있던 할머니는 2009년에서 2010년 괴시마을 옛 집으로 돌아옵니다.

위낙 낡은 집이라 처음엔 왔다 갔다 하며 지붕 수리하고 수도 넣고 화장실 고치며 지냈지만 여전히 보일러는 넣지 못해 군불을 때야 했습니다.

권 저저(자식)가 보기에 내가 옛날 낡은 집에서 사는 게 보기 그랬던 거라. 옛날에도 고생했는데 나이도 많은 지금 다시 시골 내려와서 고생한다 싶었던지 집을 지으려고 알아보대. 그러다가 지금 집을 사게 됐어요. 이런 대궐 같은 집에 사는데 내 나이가 많아서 아쉽지. 80살 만 됐어도 5년은 넉넉히 살텐데. 이제 언제 갈지 누가 알것노.



아들 네 형제가 힘 모아 만들어준 대궐같은 집에 편히 앉았자니 자식 키울 적 마음 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권 내가 우리 아들 정주고 키우지 못했다. 우리 아들이 그런다. 여북하면 '우리 엄 마는 우리 클 때 군대식으로 키웠잖아.' (평일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에 뭘 일 시켜야겠다 계획을 잡아놓잖아. 아침 먹고 들여다보면 지는 시험 공부한다고 책상 앞에 앉았거든. 그럼 내가 소리를 질렀다. '공부만 하면 먹고 사나!' 요새는 공부만 하면 먹고 사는데 그땐 일만 해야 먹고 사는 줄 알고, 고함 고함을 지르지. 책 덮고 일하러 안 나올 수 없는 거지. 내가 그렇게 아들 일을 시켰다.



정을 요만치도 안 쫘잖아.  
옷이라 카는 옷은 남 입던 헌 옷 다 갖다 입히고  
그래도 싫다 좋다 투정 부리지 않고,  
지 힘으로 참말로 강하게 커줬다.

권 병원이 있거나 하나, 병원 갈 돈이 있나. 그걸 다 알고 잔병치레 없이 잘 커줬다. 이제는 그게 다 미안해. 내가 반찬이든 뭐든 옹게 해먹이기를 했다. 한 단에 20원하는 정구지, 20단을 베면 400원 벌이가 됐거든. 한참 정구지 베고 있으면 학생들 하나 둘 하교하는 게 보이는 기라. 그러면 집에 달려와서 군불 때 가지고 정구지 고추장에다가 버무려가지고 반찬이라고 주는 게 다였다.



내 손으로 고기 한 번을 안 멕였다. 고기 반찬은 할 줄도 모르고, 지금도 불고기 다 뭐다 고기 채워놓고 구워먹는 그런 거 나는 할 줄도 모른다. 그런데도 탈 없이 잘 커졌다. 나는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런데도 잘 키워줬다고 90살 생일에 엘범까지 만들어서 선물해줬다. 애들이.

아무리 자손이지마는 내가 참 부끄럽다.  
내가 뭐했다고 이라노 싶어서.

오직 소망은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애들 애먹이지 않고 가는 것인데...

팔순 전후로 할머니 몸에도 빨간 볼이 여기 저기 켜졌습니다.

구십 년을 마음 고생, 몸 고생시키며 험하게도 끌고 다닌 육신이니 잔고장 생기는 것도 당연하지만 특히 2012년도에는 온갖 수술을 다했습니다.

머리가 깨지게 아프더니 안압이 올랐대요. 한쪽 눈은 너무 아프고 한쪽 눈은 깜깜해져서 안 보이는 거라. 새벽 4시에 너무 아파서 아들 깨워서 응급실로 갔어.

그 시간에 의사가 있나. 링거만 꽂아놓고 그냥 기다리다가 아침 7시에 의사가 와서 주사를 끼워놓으니 점점 앞이 밝아지더라고. 녹내장이 왔다고 하대. 바로 수술 했잖아요. 수술하고나니 안경 안 끼고도 자세히 잘 보여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가 난생 처음 대장 검사를 했는데 용종이 있다고 해서 배 째고 제거 수술했어요. 2012년 그해엔 맹장 수술도 했잖아요. 무슨 액땀을 한 건지 구십 평생 병원 출입 젤 많이 한 해였을 거야.

요즘도 속이, 위장이 안 좋아 가지고 좀 힘들어. 마음대로 못 먹고 소화 잘 안돼요. 약은 떨어질 날은 없고... 관절약하고 위장약은 60년째 먹어요. 요새

같으면 우울증이야. 10년 동안 애를 못 낳아 가지고 누구 집안에 누가 임신됐다 카면 안어른이 나 밥 먹으러 할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 내가 밥 먹을 자격이 있나 싶어 가지고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래 가지고 내가 요새 말하면 우울증 같이 온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봐요. 나는 아픈 데도 많고 신경도 많이 쓰고 이래 가지고 빨리 죽을 줄 알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사며 명문대 들어간 자랑스런 손자들 취직하는 것도 보고 싶고 시집 장가는 것도 보고 싶은 욕심이 자꾸 커집니다.

밤에 누우니까 배가 살살 고프는 거야  
그래 가지고 밤 9시에 일어나서 우유 한 통을 다 마셨어.  
우유 먹고 잤다니까, 안 죽을라꼬(웃음)

.....

누가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아도 지금은 다 잊고 잘 산다고 해도 못해준 것, 안해준 것, 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는 어머니의 가슴에 응이져 남아있습니다.

잘 먹이지도 잘 입히지도, 원하는 공부를 다 시켜주지도 못했지만 거뜬히 자수성가해서 누구보다 잘 사는 자식들. 그래도 어머니는 늘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그때 먹이지 못하고 그때 해주지 못해서... 어머니는 웃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자식도 원치 않는 눈물입니다.

깊게 패인 주름 골짜기에 눈물이 골골마다 젖어들 때 속으론 얼마나 많은 눈물이 강줄기가 되어 흘렀을까요.

이제야 자식 끼고 살아내느라 속이 시커멓게 멎든 어머니가 보입니다.

자식과 손자 손녀 알토란 같은 열매들이 할머니의 지난 삶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웃고 살 날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리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다.

피와 땀으로 낳고 끝까지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제 웃으셔도 됩니다.



## 영국 신사와 산 한평생

임순연 (1941년 신사생 82세)

인생은 내가 그리는 그림이 실현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항상 엇박으로, 엇나간 길로 나를 인도합니다. 그래도 원래 나의 길이 거기인양 우리는 묵묵히 천리를 가는 소걸음으로 걸어갑니다.

길을 다함이 없지만 우리 삶이 소진해갈 때 잠시 앉아 돌아보면 내가 그린 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 걸어왔다고, 잘 참고 잘 견디며 왔다고 나를 칭찬하며 토닥입니다.

누구에게나 칭찬과 위로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할머니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임순연 할머니 덕은 괴시마을의 끝단입니다. 고택이 처마를 맞대고 이어진 괴시마을 중앙로에서 한참 떨어진 호젓한 산자락에 기대있습니다.

“하이고, 도시에서 촌까지 우째 왔노.  
한 남씨라도 저어는 도시고 여는 강촌이재.  
촌까지 오니라 고생했어요.”

첫 대면부터 할머니 유머가 시작됩니다.

남씨 문중에 시집왔는데 남자 효자 두자 신랑이 향렬이 높아 밖에 나오면 다들 할배, 할매로 불렀답니다. 덕분에 갓 시집온 꽃각시도 바로 할매가 되었다죠. 첨부터 할매 할매 하는 바람에 폭삭 늙었다고 헤헤 웃으십니다.

무심하게 툭툭 던지는 할머니의 유머, 그 유머를 시작으로 이제 네 번째 만남이 시작됩니다.

허현정 작가(이하 허) 고향은 어디세요?

임순연 할머니(이하 임) 나는 병곡면 다릿골이라고 각리 윗동네에서 났어요. 동네가 도리뱅하게 오목하게 감싸여서 사람 사는 동네 같지 않아 갖고 동남 때 인민군도 그냥 지나갔다 그래요. 사람 안 사는 데라고. 친정은 7남매인데 내가 둘째. 시집오기 전까지 학교도 안 댕기고 집안일만 했어요.

허 시집은 언제 오셨어요?

임 20살에 시집와서 64년을 여기 살았어요. 촌에서 영양 남씨 양반집이라고 해서 시집왔는데 와보니 진짜 암 것도(아무것도) 없어요. 논밭도 없어요. 있는 것도 찌어 기 산골짜기에 쪼매. 살림살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암 것도 없어요.



시아버님은 안어른이 돌아가셔서 홀로 계시고 우리 주인양반이 백부 양자로 갔어. 작은집에서 큰집 양자로 간 거지. 이 집에 장손으로 뻘어요. 그래서 못 떠나고 64년을 여기 살았지. 주인양반이 장손이니까.

멋모르고 시집 온 새색시를 맞아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임 “시집오니 빈소가 셋이에요. 못 사는 집안인데 3년 전에 세 분이 돌아가셨더라. 근데 3년 동안 아래채에다 빈소를 차려가지고... 옛날에는 3년 상을 했잖아. 방장 쳐놓고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은 여기 모시고. 그 아랫대는 요기 세우고, 아랫대는 요기... 3대를 시집와 가지고 내가 다 탈상했어요. 시조부님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며느리 죽고... 줄초상이지.

내가 오던 해에 한 어른 묘소에 내고  
 그 이듬해에 한 어른 묘소에 내고,  
 시조부님은 한 3년을 했지.  
 내가 시집오던 해 7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듬해에 탈상했지.

새댁이 시집오자마자 한 것은 3년간 연이어 돌아가신 망자들을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신흠 3년을 상중으로 살았습니다.



임 노란 조밥에 고구마 하나 그게 식량이었는데 쌀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빈소를 떡 차려놨으니 조석으로 올려야 되잖아. 술 옆에 쌀을 쪄넣어서 따로 한 밥을 상석밥으로 올렸지. 산 사람들은 상석 올렸던 밥, 조밥에 섞어먹었지.

귀신은 안 잡수니까.(웃음) 삭망 때는 떡 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 올리고. 옛날엔 법도 무서웠어. 산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몰라. 그때 나이가 스무 살이었으니까 뭘 아나. 촌에서 학교를 가기를 했다. 시집가면 밥이나 해먹고 살면 되나 부다 했지. 와서야 그 사정을 다 알았어. 요새 같으면 도망갔을텐데. 그때는 죽으라고 하면 죽은 척 했지.

없어도 너무 없는 집안에 시집와서 망자를 3년 모시고 나니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뭐든 해서 식구들을 먹여야겠다 용기도 생겼습니다.

임 자식 얘기는 속상해 말도 못한다. 스무 살 시집와서 큰아들을 스물두 살에 낳았어. 주인양반이 양자로 왔는데 대 이을 아들 낳았다고 좋아서 난리가 났지. 자식은 오남매 됐어요. 딸 둘, 아들 셋. 막내가 아들. 자식은 줄줄이 생겼지 애를 굶길 순 없잖아. 아 하나를 낳아 가지고 방에 눕혀 놔두고 저 밭에 갔다오면 그 놈이 온 사방 기어다니다가 울고 있고... 일어나보니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큰아들이 좀 커서는  
 밭에 몇 살 터울 안되는 동생을 맨날 안고 엮고,  
 방에 놔두고 일하러 가면 지가 김치 빨아서 밥 맥이고 그랬다.  
 지 쪄매 크다고,  
 옹게 못 먹고 살았지 뭐

임 처음에는 담배농사했어. 남의 전지해 가지고 도지 주고(남의 땅 빌려서 농사지어 세 때주고) 쪼매 남는 거로 쌀 팔아서 겨우 먹고 사는데 돈이 있어야지. 요새는 한 마지기에 쌀이 네 가마니 나오는데 그때는 나락 한 가마니도 못 먹었어요.

농사가 안돼 가지고. 비료가 없어서. 결국 돈이 없어서 대학도 다 못 보냈어요. 큰아는 2년제 나오고. 둘째는 대학도 못 시키고 지가 전기 학교 나와서 취직했. 막내는 늦게 낳았는데 그때는 쪼매씩 형편이 나아져 가지고 영대 보내서 풍산금속 들어갔어. 딸들도 대학 못 갔지. 고등학교까지. 막내딸이 대학 가고 싶다고 울고불고 했는데 뭐 돈이 있어야지.

지금 맏딸은 강원도 둔내로 시집갔고 막내딸은 안동 권씨 집에 시집가서 서울 살아요.

옛날엔 공부가 어땠어.

학교갔다오면 책보 던져놓고 담배밭에 약 치라고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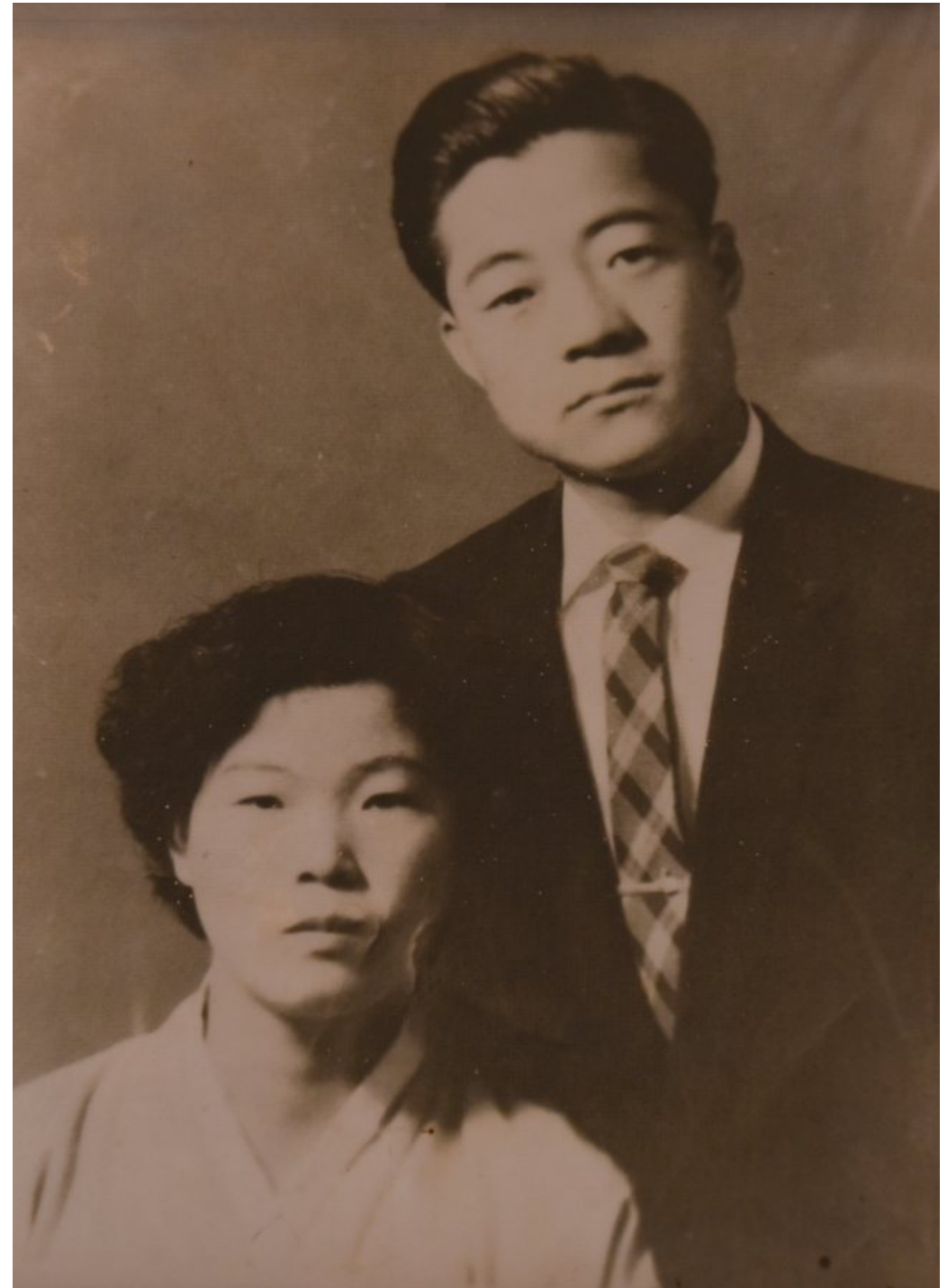
그 독한 걸 하라고 시켰어요.

아버지 된 양반이 일을 콕콕 못하니

어찌 자식들이라도 도와줘야 먹고 살지.

임 시집을 때도 혼례 사진 한 장 안 찍었어. 그래 가지고 좀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 봤으면 싶어 가지고 읍에 나가서 “우리 사진이라도 한 번 찍자”고 하니 성내리에 부산사진관으로 가대. 거기서 딱 손톱만한 크기 사진 하나 찍었어요. 그걸 내 갖고 있었는데 우리 큰딸이 확대해줬어요.

갓 시집온 순연씨의 유일한 사진입니다. 결혼사진 한 장 박아주지 않고 색시를 데려왔지만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던 주인양반. 원망도 달관의 페이지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입 우리 주인양반은 마음이 고와 식구 나무라고 그런 건 없어. 일은 못해도 돈은 안 벌어도 말 한마디 해도 나한테 불손하게는 안 했어요. 나는 이래 팔팔해도 자기는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커피도 좋아하고 커피도 잘 탔어. 옛날에 봉지 커피 없을 때 커피, 프리마, 설탕 세 통 놓고 따로따로 타 먹었잖아. 참 잘 탔어. 다 맛있다 그래. 나는 커피를 먹을 줄 몰라 안 먹었거든. 근데 집은 몰라. 만날 나가지. 돈 벌어오는 재주는 없었어요. 시어른 계실 때는 농사 쪼매 짓는 거 어른이 다 알아서 하셨는데 어른 돌아가시니까 주인양반이 그걸 맡아서 해야 되는데 자꾸 나가. 친구들이 자꾸 불러내니까. 동장도 3년 했어. 그라고 새마을금고 대의원, 조합 대의원, 수리조합의 대의원. 영덕에 산림조합 대의원. 그런 거는 맡아가지고 나가고 들어가고. (주인양반) 일도 할 줄도 몰라요. 품팔이라도 하면 돈은 벌어요. 일을 할 줄 모르니 것도 못하고 농사일 거들면서도 마음은 항상 성내(시내)에 가 있지.

집 고치기 전에는 그냥 불 때던 집이에요. 주인양반은 나무 하나 안 해오고 사랑어른(시아버지)이 나무 다 해다가 넣어줬어. 시어른이 참 일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며느리라고 우대 우대 하셨어.

우리 주인양반,  
아무리 급한 일 있어도 머리 싹 감고 옷 갈아입고 나가잖아.  
친목계에서 별명을 지었어.  
팔방미인도 있고 노름 잘한다고 까꾸리도 있고.  
이 집 주인은 영국 신사래.  
내가 그래서 아들한테도 그랬어.  
야야 내가 영국 신사하고 산다.(웃음)



커피 좋아하고 품성 온화하고 사람 만나는 게 낙이었던 영국 신사, 주인양반(남편)은 칠순 생신상을 받고 난 다음해 여름 느닷없이 쓰러지셨습니다.

임 6월 10일 밤에 눈에 물 보러 갔다가 조금 이상했던가 봐. 집에 안 오고 밤에 불켜는 술집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 쓰러진 모양이야. 여기 병원에 밤중에 가니 의사가 오나. 수술하라고 하는데.

그때 도시로 나갔더라면 지금도 그 생각해요. 그때 돌아가시더라도 도회지 병원에서 수술했었으면. 원이 없을텐데. 지금도 후회해요.

수술해서 살아나긴 했는데 몸 한쪽을 못 쓰고 말을 못해요.

그런 상태로 3년 동안 집에서 병수발 했어요.

한 3년 모시다보니

내가 허리가 아파서 운신이 안돼요.

아아들이 보고 이러다 두 분 다 잃는다고.

임 대구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거기 15년이나 계셨어. 그렇게 매일같이 돌아다니던 양반이 운신을 못하고 말문이 닫혀버리니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말이 15년이지. 아들 며느리도 골탕먹었어요. 병원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더 오래 살까 겁났어요.

아아들 보기 미안찮아. 돈이 얼마나 들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척척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병원에서 20년 30년도 있다는 소리 들으면 심장이 철렁철렁했어요.

병원에 하도 오래 계셔가지고 아아들 보기 미안해서 가슴은 아파도 내색도 못 했어요. 다 돼갈 무렵에 의사가 콧줄을 달아야 한다더라고. 내가 반대를 했지.

콧줄 달고 더 오래 살면 우야노.  
그러니 아들이 나한테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냈어.  
근데 콧줄 달고 그리 오래 안 갔지.

마음의 준비는 다 마쳤다 생각했지만 막상 이별의 순간은 황망하게 찾아왔습니다.

임 아들이 평소에는 아침 저녁에 병원에 가고 낮에는 안 가는데 그날은 가고 싶더라고요. ‘아버지 저 왔니더. 점심 잡삼니겨.’ 하니 먹었다 하고 나올 때 마음이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 나가려니까 누워계신 분이 아들한테 손을 이래 이래 흔들더라고. 평소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가 집에 와 생각하니 이상타. 아버지가 왜 손을 흔드노. 했대요.



그게 끝이야.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

아들 셋 있어도 하나도 임종도 못 봤어요.

돌아갔다고 전화와 가지고 그래 밤에 다들 잤잖아.

아들들이 돌아가시는 것 못 봤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도 큰아들한테는 '나 간다, 잘 있어라' 손을 흔드셨나 봐.

임 나도 돌아가시기 한 사나흘 전에 아들이 집에 왔다 가는데 (대구를) 따라가고 싶  
테요. 그래서 주인양반 봤어. 살아 계실 적에. 그리고 한 사나흘 있다가 돌아가  
셨지. 그래도 (임종 소식 들으니) 가슴이 찡하대. 이제 갔구나 싶었지.

그게 5년 전이야. 85세에 떠나셨어요. 살아계셨으면 91살이네.



동네 사람들아! 할매 공무원 됐다!!

임 우리 부산 막내 동생은 요새 또 내가 공무원 됐다고 뭐 좀 얻어 먹자 해요.  
올해부터 쓰레기 줍는 (노인)일자리 나가잖아. 그걸 아들이 알아갖고 난리를 해요.  
“엄마 그런데 나가지 마소. 우리 오남매 밥 먹고 사는데 엄마 굶길까.”  
“아이고 야 내가 심심해서 나가야 된다. 그거서 한참 놀다오면 낫다”  
이러고 꼭 가지.

요새 가만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주인양반 살아 있었으면 이제는 아들한테  
용돈도 얻어쓰고 당신도 쪼매 벌고하면 좀 낮게 살았을 낀데. 그 좋아하는 마  
실, 땡기기도 더 땡기고 요새는 내 통장이 있고 나라에서 돈도 넣어주잖아.  
옛날엔 통장이란 거 상상이나 했다. 지금 계시면 좋아하는 고기 한 마리 사다  
가 대접할낀데. 일찍 갔어. 할마이 공무원 되는 것도 못 보고(웃음)

내 생각엔 그 해 일본 갔다 와 가지고 병 난 거 같어. 커피를 제일 좋아하시거든.  
일본 가서 커피를 한 잔 할려니 제일 싼 게 4천원짜리야. 한 잔씩 돌리려면 4천원  
이라도 돈이 크잖아. 그래가지고 그 좋아하는 커피를 많이 못 먹었다고 그라데.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때 커피라도 싹껏 자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주인양반 아프실 때부터 할머니도 병치레가 잦아졌습니다. 반신이 마비된 주인양반  
수발할 때 다친 허리는 이제 고질병이 됐습니다.

임 한 번 아파서 약 타고 한 번 아파서 또 약 타고 보태고 보태고 해서 아침 저녁  
으로 먹어요. 이름도 모르고 그냥 먹어. 어제 약 떨어져 가지고 의사한테 물었  
어. “약을 먹어도 허리는 왜 이리 아프노” 하면 원래 그렇대. 덜하라고 먹지, 나  
으라고 먹는 약은 아니다. 그러네. 허릿병하고도 죽을 때까지 친구해야 되게 생  
겼어. 배에 수술도 했잖아. 담석증. 밤새도록 배가 아파 죽을 것 같더라고. 근  
처 사는 조카가 나를 대구로 태워가서 아들이 아침에 병원 잡고 수술했어.

마루에 놓인 장식장에 유기 잔대와 낡은 호롱이 있어서 옛날 쓰시던 물건 더 없어요? 했더니 주섬주섬 뒀가를 꺼내놓으십니다.

펼쳐보니 시어른 쓰시던 안경집과 동그란 돋보기 안경. 담배를 채워피던 곰방대가 나옵니다.

시집과 대를 이어주었던 머느리를 늘 우대하셨던 시어른의 유품.

아들 대신 고생스런 농사일 도맡아 하셨지만 정작 이밥 한번 제대로 못 드시고 안경쓰고 책 볼 여유도 없이 사셨답니다.

짚으로 새끼 꼬느라 두 손이 터져 성할 날 없던 모습도 생생하다 하십니다.

.....

괴시마을과 인연 맺은 지 64년.

터줏대감 감나무는 여전히 그대로지만 스무 살 시집을 때 자그마했던 꼬맹이 소나무는 64년 동안 쑥쑥 자라 이젠 집에 드는 별을 가린다고 합니다.

먼저 가신 시어른이 지켜주고 주인양반이 돌봐주는 감나무집에서, 할머니 이제 선선히 옛말하고 더 많이 웃으시길... 바라봅니다.



## 지는 싸움의 달인

김명자 (1942년 임오생 81세)

손자병법에 가장 최고의 전술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 부전이승不戰而勝'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 같고 지는 것 같고 억울하고...그래서 싸움을 하기보다는 안 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성자들은 이렇게 타드립니다.

싸우는 것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이기겠다 마음먹고 있는 자신을 이겨야만 하는 내공이 필요합니다.



내공을 기르는 덴 인내와 용기가 필수이고요. 생색내지 않고 만물을 품고 기르는 대지의 내공, 바람의 내공, 태양의 내공을 닦아야 합니다.

여기 괴시마을에도 '지는 싸움'의 달인이 있습니다.

할 말 없다, 말주변이 없다며 한사코 밀어내는 김명자 할머니를 만나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듣습니다.

허현정 작가(이하 허) 고향은 어디이고 어떻게 자라셨나요?

김명자 할머니(이하 김) 친정은 창수면 삼계. 오촌 위가 삼계예요. 친정 형제는 삼남매. 그 중에 맏딸. 우리집에는 그렇게 밥 먹는 거 어렵고 그렇지 않는데 논농사 아주 크지는 않아도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정도였지. 소먹이는 일꾼 두고. 근데 나 8살 때 6.25가 터졌잖아. 우리 친정아버지는 6.25때 나가서 가지고 생사를 몰라요.

우리집이 큰집이라 모친이 시동생들 다 결혼시키고 동서들하고 같이 살았지. 층층 숙모들이 많아서 나는 부엌일 안 했어. 집에서 바느질이나 하고. 나 앞가림 할 정도. 뭐 그래도 반가에 시집와서 빠진다는 소리는 안 들었어. 우리 젊을 때는 어디 나가 돈 벌 곳이 없지만 요새는 마음만 먹으면 돈 벌고 일할 곳이 있잖아.

그때야 집에서 살림 살고 아 키우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래 살았지

허 괴시마을로 시집은 건 언제가요?

김 62년 됐지. 1961년도에 왔어요. 20살에. 일찍 시집 왔어요. 남편 동창들이 우리 동네에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신부될 여자가 궁금했겠지. 친구 집에 놀러간다고 삼계를 왔는데 우리집 바로 앞에 우물이 있었어. 두레박 갖고 물 길는 그 친구들하고 물 뜨러 오는 척하고 그 우물까지 왔다 갔대요. 나는 몰랐지. 술한 사람이 우물에 왔다 갔다 하니께니.

(신랑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대. 동네에서. 혼담 있는 후 처자가 어떤가 싶어 가지고 그랬겠지. 그때 맞선보는 게 없었으니까. 나야 시집가라하니 까 왔지. 남편은 2살 위라 결혼할 당시 22살. 아직 군대도 안 갔더라고. 음력으로 10월 달에 내가 시집왔는데 음력으로 정월 달에 군대 갔어. 두 달 조금 더 같이 있었네. 아마 지원해서 갔지 싶어요. 여기 동료들이 많은데 가자 가자 하고 그래서 갔지 싶어.

애는 군대 간 후에 생겼어요.

휴가 오고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출산할 때도 휴가 왔어요.

김 군에 갔는데 군대 상사 부인이 우리 남편하고 친척 되는 분이라 휴가도 자주 나오고 집에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상사 부인이 종이종 이종사촌이라고. 금방 결혼한 색시가 있고 하니 상사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휴가 좀 자주 보내줘라 보내줘라 그래 됐나 보데요. 그래서 자주 왔어요. 집에.

허 시집왔을 때 식솔은 어땠나요?

김 시부모님은 모두 안 계시고 본래는 6남매 본인데 남편 위로 시누님이 세 분이 있었어요. 형님도 계셨는데 6.25때 행방불명이 되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시동생은 뭐 객지에서 왔다 갔다 땡기고 시누이는 시집가서 없었어요. 집도 시집 올 때는 이 집이 아니었어. 굉장히 오래된 집이었는데 너무 낡아서 터만 두고 뜯어버리고 새로 지었어요. 1985년도에. 그래 이 집이 30년 쯤째 넘었지.

아직 건재한 두 살 위 용띠 신랑에 대해선 어중간한 사람이라 말하십니다.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지만 이도 저도 잘하지 못한다고...애증이 교차하는 사연을 들어봅니다.

김 그렇게 제대해 가지고 얼마 안돼서 공무원 시험쳐 가지고 공무원 됐어요. 영덕 군청. 축산 면사무소에 근무했어요. 그때는 너무 박봉이야. 누가 아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내하고 같이 뭐 판 일을 해 가지고 살자고. 거기에 넘어가서 관청을 때려치웠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막 그래 됐어 공무원은 오래는 못 했어요.

한 10년도 못 했지 싶은데 그럴 때는 자전거 타고 축산 면사무소까지 자전거 타고 다녔지.

월급도 너무 박봉이고 또 차 타고 군청에 다니면 차비 빼고 뭐 빼고.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이탈해 버렸는데. 뭐 뜻대로 안됐어요. 집안에 전답은 좀 있었는데 남 쥐서 농사지었어요. 그러다가 마을 이장 맡아 가지고 이장 한 20몇 년 했어요. 우리 주인양반 취미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시사잡지 사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집 앞에 밭이 100평쯤 되는데 둘이 같이 밭농사는 지어요.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아직 꼬장꼬장 해요. 불만이 있거나 없거나. 함께 산 지 62년 됐으니까. 할 얘기도 없고 또 얘기 해 봐야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누구는 삼시세끼 밥하고  
 영감 수발 들고 하는 것도 지겹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힘들고 하기 싫고 그렇지는 않아요.  
 나는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러저럭 이래 살지,  
 이제 어쩔 수 없지

역시 자식 얘기가 시작되자 갑자기 활발해지는 할머니, 말씀이 많아집니다.



김 애들은 남매라. 아들 하나 딸 하나 맏이는 남편 군대 시절에 태어났고 딸은 뒤에 났다. 2살 터울. 여기서 모두 고등학교 시키고 대학 공부하러 대구 내보냈어요. 딸은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영해 여상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어. 아들은 대구에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거기 살아요. 딸은 울산에서 결혼했어요. 58살인데 며느리 봤어요.

딸이 스물여섯 살에 결혼해서 스물일곱에 애를 낳았는데 그 아가 또 장가를 요새로 치면 일찍 갔어요. 지금 32살인데 31살에 결혼했어. 그래도 그 아이가 빨리 빨리 결혼도 하고 학교도 이제 박 사학위 받아 가지고 취업한 지가 한 달 안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맏이인데 딸을 먼저 시집 보내 가지고 친손자가 늦어요. 아직 대학교 다니고 있고. 자식 농사는 오빠가 늦고 동생이 빨라요.



허 건강은 어떠세요?

김 다리가 아파 가지고 우리 아들이 대구에 있는데 지 잘 아는 의사한테 가자 가자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뭐 검사했어요. 그 의사 말이 “뭐 다른 데 가면 수술하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 입장으로는 수술하라 소리는 안 하니디.” 하면서 약 처방해 주는 거지. 근데 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걷는 게 힘드네. 우리 아들도 나는 어머니 수술하라 소리는 안 나오니디. 나도 수술은 하고 싶지는 않아서 이래 견디고 있어요.

맨날 시장에 가야되는데 우리는 기동력이 없어 가지고 맨날 내 발로 걸어 땀겨요.

다리 아픈 할머니가 매일 장 보러 다니는데 주인양반이 좀 도와주지 않나 물었더니 아주 단호박! 뚝 잘라 말하십니다.



김 주인양반은 장에 안 가니디. 우리는 아직 이 햇수를 살아도 어디 시장 가서 뭐 사 가지고 오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래도 남편 봉양하는 게 결혼했으면 져야 되는 내 책임이지, 여자 책임이잖아요. 만났으면 서로가 헤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서로가 그리 살아야지요.

허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김 심근경색 심장 시술했어. 스탠스 넣는. 어느 날부터 뭐 좀 움직이면 자꾸 가슴이 아프다고 하네. 며칠을 보내고 처음 여기 병원에 갔는데 잘 몰라요. 허 밑에다 약을 넣어주고 하니까 좀 덜해져서 집에 왔지. 알고 보니 심근경색이란 게 시분을 다투는 병인데 우리가 몰라서 미련을 떨고 있었던 거라.

마침 제사가 코앞에 닥쳤어. 어린이날도 다가오고 그럴 텐데. 제사를 두 번 지내야 하기 때문에 제사 지내고 대구 병원에 가지 하며 참았던 거야. 하루 하루 미적거렸지. 거기다 중간에 공휴일이 끼어 있었어. 그것도 지나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결국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본인이 제사 못 지내고 작은집 어른이 제사를 집전하셨어. 그 병은 분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끝면 안 된다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약만 타 먹고 한 5일을 집에 있었던 거라.

한숨 소리가 깊었습니다. 김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김 결국 119를 불러 병원에 가려는데 환자가 의식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안 오는 거라. 나중엔 할 수 없어서 택시를 불러다가 타고 나갈라니까 구급차가 들어오대. 택시기사가 사람이 죽어가는데 얼른 안 오고 뭐냐고 차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일단 아산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포항가라고 하는 걸 아들이 대구 있으니까 대구 가겠다고 나왔지.

거기서 또 바로 대구로 안 가고 이틀밤을 자고.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막 달려왔다. 그래가지고 태워서 급하게 대구로 갔는데 아들이 그라대.

“엄마, 다음에 뭘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119를 타고 빨리 나오라”고. 급한 환자가 응급실에 갔는데 119를 타고 가야 빨리 검사를 해주지 승용차를 타고 간 사람은 그냥 앉혀놓고 대기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앉혀놓고 있냐고 소리를 치더라. 그러니까 그제야 들어오라고 하대.

영남의료원에 우리 아들 잘 아는 의사가 있어서 그리 갔다. 검사하더니 바로 시술해야 된다고. 날짜 잡을 겨를도 없이 바로 시술 들어갔다.

그게 5년 전 일이야.

김 그런데 그런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 사람이 좀 변해야 하는데 시술 후에도 병원을 다시 안 가. 가서 검사받고 약도 먹고 해야 하는데. 고집이 세서 나 하고 싶은 데로 해야지. 누가 그러라 한다고 절대 말 안 들어요.

아들이 말해도 안 듣고. 약도 거기서 지어가지고 온 거 잡습고는 약도 더 타러 안 가. 그래도 그냥 견뎌요. 시술한 이후에는 아프다 소리는 안 하세요. 그런데 요즘 일을 하면 숨이 가쁜가 봐. 거기다 담배도 피운다니까. 내가 정말 속이 터지지.

내 말은 물론이고 아들 말도 안 들으니까 이걸 어찌야 돼.

답답한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칠순 잔치 했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여자가 뭘.

작년 나 팔순 때는 코로나 때문에 아들도 다 못 오고

그 난리를 칠 때였으니까 생일 자체를 안 했다.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

할아버지 팔순 생신상 했으면 됐지.

내가 뭐.”

가족을 위해서는 무한희생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선 어떤 주장도 하지 않고 그림자로 사는 것이 당신의 역할, 자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또 우리의 어머니 모습이라 낯설지 않고 그래서 아픕니다.

.....

일생 쉽 없이 제사상이며 손님상을 차려내신 할머니. 오늘 반갑지 않은 객들을 위해 참기름 자르르 바른 모싯잎송편을 내으셨습니다. 모싯잎송편을 제상의 웃기떡으로 쓰기 때문에 늘 모싯잎을 쟁여두고 떡을 빚는다는 할머니.

겉보기엔 투박하지만 한 입 맛보면 찰지고 보드랍고 달달한 앙금을 품은 이 떡은 할머니와 꼭 닮았습니다.

정갈한 대청마루, 반질반질한 다듬잇돌, 시골집이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 살림이 할머니가 살아온 세월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원망도 회한도 아쉬움도 없다 하시는 할머니.

시집을 왔으니 내가 맺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 처음과 끝, 전부입니다.

20년 이장을 하시고 매달 시사잡지를 사보며 서재방에서 글 읽는 걸 즐기는 남편을 62년간 삼시세끼로 모시며 군말 하나 입 떼보지 않은 할머니.

노여움이나 원망은 증발되었습니다. 오히려 선선해진 눈빛.

체념이 아닌 해탈, 달관, 맑은 보살의 미소로 응답하십니다.

집안의 종부로서 지는 싸움이 오히려 이기는 싸움임을 아시는 듯, '지는 싸움'의 영원한 승자로 살아오신 어머니.

고단한 세월을 이겨낸 낮빛이 환한 배꽃 같습니다.





chapert 03

못다한 말들의 입맞춤  
— 도움주신분

임순연 김은희 권노미 김기웅 권태갑 권분연 신위성 김기선 박차노미 천봉조  
김명자 조영주 이분녀 신세학 이후경 박종분 황숙재 장순연  
병원에 계신 박수남 이진기 김복순 안차숙 장분도 등 괴시리 노인회 어르신

김인 이장님, 남중열 괴시마을 보전위원장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리고  
나의 어머니

투병 중에도 딸자식 끼니 챙기는 일이 생의 마지막 끈이었던, 그 어머니의 삶에 대해  
묻고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지 못한 후회를 이 작업을 통해 덜어보려 했습니다. 나중  
에, 다음에, 내년에... 미뤘던 많은 것들. 당신이 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나중은, 내일은 없다는 것을...

모든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참 애틋  
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못한 말. 이제 할머니께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글\_ 허현정  
사진\_ 이상철·김영철  
편집\_ 최미경  
디자인\_ 박재은  
기획\_ 영덕문화관광재단

국가민속문화재 제301호 괴시리 전통마을 '할배 할매 이야기'

# “이래 웃는 세월을 줄 몰랐네”

## 내 인생의 보물

---

인쇄일 : 2022년 10월 26일

본 사업은 [2022 지역기반 통합프로그램 지원사업]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출간물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및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있으며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99 / www.ydct.org  
lyb@ydct.org / 054)730-5876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

영덕문화관광재단